



己丑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진제공 연합뉴스〉

소처럼 의연하고 씩씩하게 ...

관악출추

새해가 밝았지만 경제위기로 우리의 미래는 불안정하기만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것인가?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기적 같은 성취를 이룬 우리의 저력을 느끼며 희망을 가져야 한다. 반세기만에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를 이뤄 세계를 놀라게 한 것이 우리의 참 모습이다. 기술개발과 시장 개혁으로 세계 10대 교역국이 됐는가하면 첨단기술의 총아인 반도체 휴대폰은 물론 조선업에서 세계 1위에 올랐고 종합 기계공업의 산물인 자동차도 빅5를 바라

보고 있다.

우리 국민은 커다란 목표에 '올인'하는 독특한 문화가 있다. 특히 스포츠에서 돋보인다. 수영과 피겨스케이팅, 쇼트트랙, 양궁은 물론 골프에서도 우리의 재능은 세계의 화제가 되고 있다. 프리미어리그 명문팀 유니폼에는 우리 기업의 로고

정신세계를 풍요롭게 하는 문화에도 선진화 바람이 불고 있다.

영화, 뮤지컬, 오페라, 연극까지 고정 관객이 넘쳐흐르고 미술전시 '사갈'전에는 50만 인파가 넘치는 풍요로운 문화의 장을 볼 수 있다.

한류의 문화적 역동성은 연예, 디자인,

'비'는 노래도 잘하고 안무도 현란하지만 그의 성공은 뛰어난 마케팅기술을 간과할 수 없다고 했다.

지금 위기의 끝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기술력과 문화적 역동성은 다시 비상하는 역전드라마로 승화시킬 수도 있다. 미국인의 추앙을 받는 토크쇼 MC '오프라 윈프리'가 어두운 과거를 떨치고 새 인생으로 탄생한 것이나 미국의 새 대통령 '오바마'가 청소년 시절 정체성의 혼란을 극복하고 일어난 일화들을 기억해 보라.

새해에는 모든 희망이 성취를 이뤄 우리가 이 나라에 태어난 것을 특권으로 여길만큼 착각을 해보면 어떨까?

(林炯斗논설위원)

이 나라에 태어난 것만도 특권

가 경쟁적으로 부각돼 세계인의 시선을 끌고 있다.

이런 저력으로 우리는 올림픽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렀고 선진스포츠의 근간인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도 준비 중이다.

패션, 공예, 인테리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에서 발휘되고 있다. 미래학자 '짐 데이토'는 한국을 드림소사이어티(꿈과 이미지를 파는 경제)에 진입한 세계 1호로 한류이미지를 평가했다. 월드스타

신년사

모교 발전을 위해 중지를 모읍시다

새로운 가치 창출과 실현 적극 추진

서울대총동창회 林光洙회장

서울대학교 李長茂총장

친애하는 서울대 동문과 가족 여러분!

밝아온 己丑年 새해 아침에 우리 서울대 30만 동문의 가정에 건강과 축복 그리고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소망하시는 일이 모두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IMF 환난 이후 최악의 경제난을 겪으며 온 국민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습니다. 來者可追라는 말처럼 이미 지나간 일은 어찌할 수 없으나 이를 교훈 삼아 미래의 일을 계획하면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신념으로, 위기 때마다 뭉쳐 일어났던 우리 국민의 저력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己丑年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나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동문들이 모교와 동창회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그 때문에 모교의 이름이 그 어느 때보다 빛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 세계 대학평가에서 국내 최초로 1백대 대학에 진입한 모교가 불과 3년만에 세계 50위에 올랐으며, SCI(과학기술논문 색인) 논문 게재 수에서도 세계 24위에 랭크되고 프랑스 명문대 '에콜 데 민'의 세계적인 CEO 배출 평가에서 세계 16위를 차지하는 등 정상을 향해 달려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모교 李長茂총장님과 교직원들의 노력으로 지난 2년간 1천8백억원에 이르는 발전기금을 모금한 것은 그야말로 눈부신 성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기필코 모교를 2025년까지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만들겠다는 굳은 결의와 추진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전 세계에 서울대학교의 우수성을 각인시킨 특별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동안 불철주야 노력하신 李長茂총장님과 모든 교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내드립니다.

자랑스러운 동문 여러분!

모교가 국내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고 세계 10위권 명문대학으로 진입하기 위한 과업은 모교 혼자만의 힘으로 이뤄 나가기에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10월 개최한 모교 후원의 밤 행사에서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갈 미래의 성장동력을 잘 키워달라는 동문들의 간절한 소망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뒤에 우뚝 서서 우리를 지켜준 모교의 은덕을 입은 우리 동문들이 먼저 앞장서서 모교 돕기에 나선다면 머지 않아 그 꿈이 실현되리라 확신합니다.

모교의 품격과 가치가 높아질 때, 우리 모두의 품격과 가치도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이때, 지난 60년간 불굴의 의지와 희생정신으로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기적을 일으켰듯이 그 열정을 모교를 돕는 데 쏟아부어 그때의 감동을 다시 한 번 느껴보는



한 해로 만들어 나갑시다. 존경하는 서울대인 여러분!

저는 동창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모래알 같다는 동문사회를 단합시키고, 모교와 동문사회가 하나가 될 수는 없을까를 고민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큰 불씨가 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동창회관인 장학빌딩을 세워 운영함으로써 모교를 지속적으로 돕고 동문들의 애교심을 불러

일으켜야겠다는 신념 하나로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모금은 물론 건축에 있어서도 모두 차질 없이 진행돼 2010년이면 동창회 재산 1천억원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세계 최고의 동창회관이자 랜드마크로서의 위용을 펼칠 수 있는 건물을 짓고 모교를 위한 수익사업을 극대화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세울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한 층, 한 층 건물이 완성돼 가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 동창회보에 게재하는 한편 진척상황도 소상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립기금의 모금은 거의 이뤄졌으나 소액 건립기금의 모금과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 증대를 위한 특장장학금 모금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는 동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훌륭한 건물을 짓기 위한 것이지만, 장학빌딩의 맨 위층에 들어설 명예의 전당 벽면에 출연자 전원의 성명을 새겨 누가 보더라도 서울대인 전체가 일궈낸 하나의 기념비적인 건물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금액의 다과를 떠나 동문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서울대 가족 여러분!

올해는 총동창회가 창립한 지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뜻깊은 해에 동창회에서 추진할 각종 행사는 그 규모와 품격을 높여 동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알차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교 재학생을 위한 장학사업도 계속됨으로써 더 많은 후배 재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매년 농생대 수목원에서 열리던 서울대 가족 친목대회를 모교 관악캠퍼스에서 개최해 6천여 명의 동문 가족이 모교의 명소들을 둘러보며 '모교를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유익하고 뜻깊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올해도 더욱 수준높은 모교 방문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대가 바로 서야 나라가 삽니다!" "서울대인은 역사와 민족 앞에 무한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소의 해로 예로부터 소는 富를 불러오고 禍를 막아주는 존재로 풍요와 평화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더욱 더 건강하신 가운데 소처럼 차분한 마음가짐과 똑심 있는 근면성으로 모든 난관을 헤쳐나가 모교와 동창회 발전을 위해서 중지를 모으는 한 해가 되시기를 거듭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서울대학교 동문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

2009년 己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동문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마다 소원 성취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작년 한 해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특히 하반기부터는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도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의 일선에서 뛰고 계시는 동문 여러분의 마음고생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친애하는 동문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려운 국내외 여건 속에서도 서울대학교는 세계 유수 기관의 대학평가는 물론, SCI 논문 수, 글로벌기업 CEO 배출 실적 등에서 모두 높은 순위를 기록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교육과 연구의 국제화와 인프라 구축, 그리고 외국 유명 교수 유치 등 대학 구성원의 다양화를 위한 노력들도 가시적인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모교의 발전을 위해 열렬히 성원해 주시는 동창회와 동문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저와 교직원 모두는 현재의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그동안의 양적 성과가 질적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과 연구의 내실을 튼튼히 하고 지식을 통한 새로운 가치의 창출과 실현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세계 일류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우리사회는 물론 세계에까지 크게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교는 학문의 경계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계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모교는 새해에도 법인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대학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존의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날로 치열해지는 세계 대학사회에서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대학의 자율적인 의사결정구조 확보와 재정



자립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부도 새해에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과 대학 자율성 확대 문제에 대해 보다 전향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문 여러분들께서도 이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해 계속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

저는 2년 전 총장에 취임하면서 우리 서울대인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공동체에 대해 보다 큰 애정과 관심을 기울이기를 희망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많은 사람들이 삶의 고비를 힘겹게 넘기고 있는 지금, 이웃과 고통을 나누고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데 모교가 앞장서려고 합니다.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고 맞춤형 장학복지 제도를 확대하며, 형편이 어려운 지방출신 학생들에게 기숙보조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또한 고용 확대에 도움을 주고자 인턴십과 직업전환 재교육 프로그램 등을 보다 다양하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서울대학교는 현재의 위기를 발판으로 삼아 더욱 효율적인 대학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창의적 지식과 기술 개발, 덕성을 갖춘 인재 양성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모교에 대해 무한한 애정을 지니시고 모교 발전을 위해 늘 헌신해 오신 林光洙회장을 비롯한 동창회 임원님들, 그리고 모든 동문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특히 어려운 지난 한 해에도 모교 발전기금에 그토록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또 자주 모교를 방문하셔서 교직원과 학생들을 격려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동문 여러분들께서 모교를 방문해 후배들과 뜻 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많이 만들겠습니다. 새해에도 동창회와 동문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己丑年 새해에도 동문 여러분과 가족 여러분께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09년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정기총회

3월 20일 (금) 오후 6시 30분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

- ◆일 시 : 2009년 3월 20일 (금) 오후 6시 30분
- ◆장 소 : 롯데호텔(소공동) 2층 크리스탈볼룸
- ◆내 용 :
 - ① 제11회 서울대총동창회 冠岳大賞 시상
 - ② 2008년도 결산 및 2009년 사업계획 보고
 - ③ 기타 안건 심의

◆회 비 : 없음.
동문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동창회 153차·관악회 107차 상임이사회는 정기총회 전 오후 5시부터 에메랄드룸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林 光 洙

● 노리나무광장

1월 20일 취임할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의 組閣은 여러모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대선 경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과 빌 리처드슨을 각각 국무장관과 상무장관으로 내각에 전면 배치한 包容인사, 당·정권·지역을 불문한 蕩平인사 등.

환경·에너지팀 조각은 더욱 돋보인다.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성장'이라는 화두에 걸맞게 경륜과 실전 경험을 갖춘 이들로 맞춤형 라인업을 구성했다.

먼저 노벨상 수상자인 스티브 주 박사를 에너지장관에 발탁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적극적 온실가스 감축 의지의 소산이다. 내각의 환경·에너지 정책을 통합 조율할 이른바 '환경·에너지 차르(황제)'를 백악관에 신설하고, 최장수 환경보호청장 출신의 캐롤 브라운너를 앉힌 것은 오바마 정권에서 환경문제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둘 것인지 짐작케 하는 인사다. 이들은 '그린 잡스 프로그램'으로 명명된 오바마 정권의 경기부양책을 주도할 세력이다.

이에 따르면 대체에너지 개발 등 저탄소 녹색성장 부문

에 매년 1백50억달러를 투입, 향후 10년 동안 5백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그린 뉴딜'이다.

이 구상은 댐, 도로, 다리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고전적 경기부양이 지구 온난화로 인한 위기 상황에는 절대로 채택해선 안 될 정책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하고 있다. 대안으로 농업을 비롯, 제조업·정보기술(IT)·생명공학·금융 등 非土建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논지다.

녹색 철학과 토건 시책

尹在錫
국민일보 논설위원
본보 논설위원



우리 정부는 최근 14조원이 투입되는 4대강 정비사업을 비롯, 총 45조원 규모의 대대적 토건사업 시책을 확정했다. 1백층이 넘는 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도 승인했다. 4대강 정비사업은 전문가들이 재앙 위험성과 경제성 없음을 경고한 대운하 사업의 선행 프로젝트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첨예한 논란의 제2라운드를 향하고 있다. 그 선봉에 청와대 경제수석과 환경부 장관,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이 서 있다.

작년 8월 15일 건국 60주년 기념사에서李明博대통령이 천명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철학은 실증된 지 이미 오래다.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그린 뉴딜'만 해도 그렇다. 새해에 2조8천억원을 들여 4만3천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 이 시책은 '무늬만 뉴딜'일뿐 진정한 의미의 녹색성장은 거리가 있다. 단적으로 말해 미국 시책에서 이름만 빌려온 '짜퉁'이다. '녹색 철학'에 '토건 시책'이 융호상박하는 形容矛盾이라니!

탄소 배출 9위 국가로 '발리 로드맵'이 적용되는 2013년부터는 싫어도 탄소저감 시책을 펴지 않을 수 없는 게 우리 입장이다. '그린 뉴딜'까지는 못 가더라도 녹색 철학을 무색케 하는 시도는 없어야겠다. 환경·에너지팀의 라인업 조정, 무엇보다李明博대통령이 토건 마인드에서 한시바삐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녹색성장의 시작이 될 것이다.

관악시단

대춘곡(待春曲)

姜洪基(필명 林步·국문58-62)

시인·前충북대 교수

아침에 창문을 여니
정월의 하늘이 희게 시리다

몸을 움츠린 사람들이
좁은 거리에 부산하고

朝刊의 활자들이
납덩이처럼 무겁다

봉황을 타고 온다는 손님은
아직 소식이 묘연치만

머지않아
따스한 햇볕이 들면

이山野엔 또
봄꽃들이 다투어 피리라.

동문칼럼

이번 정부는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World Class University) 육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외 우수 학자를 전일제 교수로 초빙해 국내교수와 같이 연구하고 우수 연구인력을 양성,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발돋움해 미래 국가발전에 기여한다는 목표로 5년간 8천2백50억원을 투입할 예정인 사업으로 지난해 9월 중순에 마감해 2개월여의 평가과정을 거쳐 11월말에 최종선정을 마쳤다.

선정된 과제로는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융·복합 학문의 학과나 전공을 신설하는 유형1에서 자연대에 생물물리 및 화학생물학과와 뇌인지과학과, 약대에 분자의학 및 바이오 제약학과가 신설되고, 분리되는 전공으로는 농생명공학부에 바이오모듈레이션 전공, 재료공학부에 하이브리드재료 전공, 화

학내 참여교수 수는 83분이며 초년도 지원액은 간접비를 포함해 3백29억원이 넘는 규모다. 외국에서 오시는 분은 미국을 비롯해 10여 개 국이고, 이분들의 평균연령은 50.8세로 각 분야에서 인정받는 업적을 내고 계속해서 연구에 종사할 나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은퇴고령자 초청이라는 보도는 모교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金夏奭
(화학63-67)
모교 대학원장
자연대 화학부 교수

이런 유래를 찾기 힘든 규모의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WCU 지원단을 발족하게 됐다.

대학차원의 재정적인 지원은 간접비의 상당부분이 유형1과제에 지원될 예정이고, 사업단에 참여하는 교수에게는 해외여행 허가일수를 근무일 기준으로 14일에서 21일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예상되는 어려움으로는 융·복합을 강조해 신설되는 학과나 전공이 기존의 학문 영역과는 상이해 대학과 학과 및 교수간의 갈등, 새로 모시는 분을 위한 연구, 실험공간의 확

WCU 육성사업의 지원단 발족

학생물공학부에 에너지환경 화학융합 전공, 기계항공공학부에 멀티스케일 기계설계 전공 등이다.

해외 학자와의 공동연구를 위한 유형2에는 8과제,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해외 석학을 단기 초빙해 교육·연구에 참여하게 하는 유형3에는 5과제 등 모두 20과제가 선정됐다. 이런 성과는 모교 교수님들의 추종을 불허하는 뛰어난 우수성과 학문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李長茂총장님의 뜨거운 관심과 배려, 시작 단계부터 과제의 세부 정리에까지 관련한 연구처장을 비롯한 추진위원회의 노력의 산물이라고 본다.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에서 59분이 오시게 됐고, 대학원에 2백92명의 신입생이 새로 배정됐

보, 우수한 신입 대학원생의 확보, 세계 최우수 학자를 상대하는 연구지원기관이나 학교의 행정체계의 확립 등이다.

지원단에서는 WCU사업으로 초빙된 외국의 석학과 함께 모교 교수의 연구역량을 극대화해 모교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고 국가에 기여하는 학문적인 업적이 나올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것이다. 또 전국적인 WCU사업 협력체를 구성해 공통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이번 사업으로 초빙되는 해외 석학을 모교나 국내 학문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네트워크를 확립하고, 중등학교 학생의 과학교육 리더십 교실의 운영 등 추가적인 활용방안도 모색하고자 한다.

서울大同忠會報

참여·협력·영광

발행인 林光洙
편집인 孫一根
인쇄인 朴薦壽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8-2
(인시주소: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연구공원 219호)
•전화 (02)702-2233 팩스 (02)886-2218
•e-메일 snua@paran.com

논설위원 金哲洙, 朴世熙, 林炯斗, 金鎮銅, 李炯均, 宋丙洛, 安炳燦, 丘月煥, 宋鎮赫, 金好俊, 洪性萬, 李五峰, 安國正, 李成俊, 朴明珍, 李慶衡, 李元勳, 金鍾勳, 文昌克, 金仁圭, 徐玉植, 高永才, 李元燮, 姜天錫, 嚴基永, 裴仁俊, 朴時龍, 辛京珉, 尹在錫, 鄭世溶, 李東植, 朴聖姬, 曹炳喆, 朴勝俊, 許英燮, 金玄浩, 鄭興寶, 李東官, 趙在鏞, 金鎮國, 崔英勳, 李容式, 李相起, 蔡耕玉, 許文明

편집장 安興燮 편집부 기자 表智媛, 金南柱, 邊榮顯 광고부장 金千鶴

소띠 동문 10명의 새해 소망

올해는 己丑年, 소띠 해입니다. 소는 성실과 근면, 끈기의 대명사인 동시에 풍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큰 덩치 때문에 가끔 아둔하고 미련하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지만, 이는 충직함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농경사회였던 우리 민족에게 소는 단순한 가축이 아니었습니다. 농사를 위한 필수적 노동력과 운송수단이었으며, 급한 일이 생겼을 때는 목돈을 장만할 수 있는 비상금고의 역할까지 했습니다. 



趙弼濟(25년생·조선항공46-50)
세양주택 회장

소는 살아서 유순하고 묵묵히 일해 인류에 노력을 제공하고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해서 인류에게는 가장 희생적으로 공헌하는

매사 감사함으로 사람을 사랑하자

동물로 알려져 있다. 八十세 중반이 된 소띠인 필자는 죽고 무엇을 남길지? 나는 아직까지도 다행히 매일 사무실에 출근을 하고, 신문·TV·잡지도 정기적으로 정독한다. 또 오래된 학교 동창친구들을 만나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과학·기술·친목단체뿐만 아니라 종친회, 향우회에도 빠짐없이 얼굴을 내미는 등 그러한 생활에서 건강과 행복을 찾는다.

그러나 소띠 해를 맞이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정치·경제·교육·문화 제반에 걸쳐 해방 후 가장 걱정스러운 상태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가운데 나이 들수록 친구도 줄어들고, 몸도 불편해질 것이니 그저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며, 매사에 감사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너그럽게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건강을 위해 열심히 몸을 움직이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새해를 맞이해 崇祖祭宗사업이나 윤리도덕을 양양하는 교육재단 설립의 꿈을 꾀 본다.

서울대학교는 나의 모교다. 항상 잘 발전되기를 기원한다. 그래서 모교가 앞으로도 우리나라 내일의 행복을 위한 등대가 되어 나라의 선도 지도자 배출에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논의되는 제도적 법인의 구현화와 재정면에서 획기적인 민관 배려가 있어야 될 줄 안다. 대체로 우리나라 대학교육은

한정된 재원으로 평범한 많은 학생을 가르치는 것 같다. 소수라도 탁월하고 유능한 사회지도자나 노벨상을 탈 수 있을 정도의 훌륭한 과학자 배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적어도 한국을 대표하는 서울대 만이라도, 국립대학에는 국가가 외국의 우수 대학과 경쟁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원을 보장해줘야 하며, 국가도 국립대학의 대학자원 예산이 어려우면 기여입학제를 허가하거나 대학과 학생 수를 더욱 줄여야 된다고 본다.

유난히 소 타령을 많이 한 목은 해를 보내고 진짜 소의 해가 밝았다. 여러 가지로 난국이라는 시기에 우리는 소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농촌에 살든 도시에 살든 소를 생각하면 주인과 일심동체가 돼서 쟁기를 끌고 논밭을 가는 일꾼, 짐을 잔뜩 실은 달구지를 끄는 근면하고 충성심 많은 하인으로서의 동물을 떠올렸다.

기축년에 소의 본질을 생각하며

그리고 우유를 생산하며, 대차에 나가서 공부하는 큰아들 등록금을 위해 무력무력 자라서 현금화될 수 있는 고마운 가족으로 생각했다.

어디 그뿐인가? 동양화를 보면 항상 평화로운 전원 분위기에 소와 동자 그리고 선비가 등장한다. 그렇게 식구처럼 대접받으며

함께 살던 소가 수명이 다 돼서 죽을 때는 주인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고 한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사랑해준 주인을 위해 고기와 가죽 등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 떠난다.

요즘 애들은 소의 이미지를 어떻게 표현할까? TV만 틀면 한우, 수입 소 타령을 하던 1년 동안 순

수한 아이들 머릿속에 각인됐을 현상이 염려스럽다. 도축장에 매달린 시뻘건 고기 덩어리, 여물 대신 말쑥한 사료를 먹으며 좁은 공간에서 무위도식하는 게으른 동물, 광우병을 염려하는 촛불시위 등 오로지 인간의 먹거리를 위한 영혼이 없는 하나의 자원인 동물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이제 우리는 소의 해를 맞아 소의 근면함과 충성심, 끈질김과 참을성, 사랑과 평화로움 등 본질을



金讚淑(37년생·치의학56-60)
청아치과병원 이사장

깊이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徐桂淑(37년생·기약56-60)
모교 기약과 명예교수

필자가 소띠라서 소에 대한 관

생각을 바꾸면 좋은 변화가 보인다

심이 많은 편이다. 가족 중에서도 소만큼 우리 인간 생활에 불가분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착하고 근면한 동물도 아마 없을 것이다.

또 죽어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영양원을 공급하고 그밖에도 가죽, 뿔, 뼈 등 하나도 버리지 않

고 사용되고 있으니 인간을 위한 공헌 1호라고 생각된다.

독일 철학자 괴테(J.W. Goethe)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마지막 단추까지 잘 끼운다”는 말을 남겼듯이 새해 첫 달부터 계획성 있는 출발을 해 경기 침체로 모두가 어려운 이 역경을 슬기롭게 대

처하기를 바란다.

어려움이 닥칠 때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희망이 보인다는 스토리 한 가지를 소개한다.

미국 어느 회사에서 사내 엘리베이터의 속도가 느려 직원들의 불만이 커지자 할 수 없이 임원 회의를 소집, 엘리베이터 교체에 대한 토론 중에 한 임원이 비싸게 교체하는 것보다 엘리베이터 대기 장소 밖에 큰 거울을 달아보자고

제안했다.

일단 시행하기로 하고 거울을 설치했더니 기다리는 동안 거울을 보면서 옷매무새도 고치고, 지루함을 잊어 불평이 없어졌다고 한다.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회복되고 클래식 음악이 우리 국민들에게 더욱 보급되도록 우리가 앞장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서민경제 활성화·복지확대에 주력

역사를 돌아보면 보통 사람들-한 사람 한 사람이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가 확보되고 신장되는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인간은 존엄성과 행복을 느끼며 살 권리가 있음을 역사는 가르쳐주고 있다.

2009년 소띠 해를 맞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서민

과 중산층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해 본다.

18대 첫 정기국회에서도 음식업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확대,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를 상향조정과 서민금융기관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해 처리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2009년은 18대 국회 2년차에

들어서는 해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다할 수 있을 지 걱정이 앞서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 활성화 지원책과 사회복지 확대 등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서울대 동문들은 모두 사회 지도층이다. 동문들 모두 사회 각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쌓아 가시리라 믿는다. 올 한 해도 보람



吳濟世(49년생·행정68-72)
국회의원

차고 뜻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린다.

경제난국 타개에 황소처럼 몸 바쳐

다니 믿어지지 않는다. 한마디로 회갑을 맞은 것이다. 살아온 60년이 한편의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민족의 비극 6·25전쟁 직전 서울에서 태어나 비록 의식주가 모두 어려웠지만 마냥 즐거웠던 어린 시절, 사춘기를 맞아 방황하면

서도 청운의 꿈을 마음껏 꾸었던 10대, 대학을 졸업하고 KBS 공사 1기로 입사해 흑백TV시절 방송기자로 사건현장을 겁 없이 누볐던 20대, 컬러TV시절 정치부 기자로서 한국정치의 속내를 묵묵히 지켜봤던 30대, 정치부장에서 보도국장까지 거치면서 편파방송 시

비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심했던 40대,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21세기 디지털시대를 맞아 뉴미디어 본부장과 이사를 끝으로 KBS를 떠나 대학교 강단에서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생존전략을 熱講하며 50대를 보낸 것 같다.

서너 달 전 방송과 통신의 화학적 융합을 위해 창립된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의 회장을 맡으면서 ‘방송인’에서 ‘방송통신인’으

로 거듭나기 위해 눈코 뜰 수 없을 정도로 바쁘게 새해를 맞는다.

10년 전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IT산업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듯이, 오늘의 경제 난국을 타개하는 데 방송통신 융합의 결정판 IPTV산업이 앞장서도록 힘껏 밀어줄 각오다. 소띠 새해를 맞아 황소처럼 더 많은 일자리, 더 창의적이고 더 전문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온 몸을 바치고 싶다.



金仁圭(49년생·정치69-73)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회장

己丑年! 태어난 干支가 돌아왔



12지신의 소는 방향은 동쪽, 시간은 새벽 1~3시, 달은 음력 12월을 지키는 방위와 시간의 신입니다. 발굽이 짝수여서陰에 속하는 데다 순하고 참을성 있는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철쭉 같은 밤이지만 머지않아 동이 트고, 매섭게 눈보라가 몰아쳐도 다가오는 봄을 기다릴 만한 시간입니다. 새해 경제전망이 어둡고 춥지만, 잘 참고 견디라는 뜻일 겁니다. 소띠 동문 10명에게 새해 소망을 들어봤습니다.

소띠 동문 10명의 새해 소망



李奉柱(61년생·사회복지81-85)
모교 대학신문 주간

경제위기의 한과 때문인지 새해

나눔과 희망을 주는 한 해가 되도록

를 맞는 분위기가 그리 썩 밝지 못하다. 내년 상황에 대한 비관론이 현실로 다가올까 걱정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나눔을 통한 희망이 새해의 화두이기를 기대해 본다.

새해는 소의 해다. 소 하면 연상되는 이미지는 항상 묵묵히 할

일을 묵심 있게 하는 것이다. 일이 힘들어도 소는 불평하지 않는다. 내일을 위해 또 주위 사람들을 위해 그저 묵묵히 할 일을 할뿐이다. 위기의 새해가 소의 해라는 것이 그나마 위안을 준다. 우리 주위에 소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 어려움 속에서 희망의 터전

을 잡아주길 기대하기 때문이다.

어느 조직이나 위기 때 그 진면목을 볼 수 있다. 나라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다. 위기를 극복하는 비법은 무엇인가? 미래에 대한 희망이다. 희망이 없이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 희망은 어디서 오나? 우리사회의 미래에 대한 희망은 나와 너를 끈끈한 공동체로 엮어주는 나눔의 실천에서 나온다.

모교와 동문들이 우리사회의 희망을 주는 나눔 실천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새해가 됐으면 한다. 또 필자가 주간을 맡고 있는 대학신문을 통해 그러한 사례가 많이 보도되는 한 해였으면 한다. 대학신문의 모토는 '잠들지 않는 시대정신'이다. 나눔의 시대정신을 기대해 보며, 우선 나부터 나눔을 실천하는 한 해가 되자고 다짐해 본다.

지난 소띠 해인 1997년에는 외환위기로 우리 경제 전체가 뒤집어지는 사태를 겪었는데, 12년이 지나 다시 맞은 소띠 해에 다시금 우리는 그에 버금가는 금융 및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그러나 지난 외환위기도 잘 극복했듯이 이번 위기도 소의 특성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위기라는 말이 위험과 기회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듯이, 개인적으로는 국가적으로든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한 단계 더 도약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기축년이 될 것으로 소망해 본다.

올해는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해이다. 시골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을 떠나 대학에 입학한 게 1979년이니, 고등학교 졸업한 지 30년, 타향살이 30년에, 대학 입학한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지금의 아내와 결혼한 지 20년이 되는 해이고, 40대의

마지막을 보내는 해이다. 그동안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 왔었는데, 이제는 뒤도 옆도 돌아보면서 걷는 속도로 살고 싶다. 필자의 띠인 소띠 해를, 지나온 3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살 30년을 계획하는 해로 삼고 싶다.

직업적으로는, 올해 국내에 지속가능경영을 확산시키는 것에 일조를 하고자 한다. 지금 우리

는 인류의 지속가능성에 위협이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예를 들면 기후변화, 자원고갈, 빈곤, 기아, 인구 증가 등의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온 것이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경영의 개념이다.

어떻게 하면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미래 세대의 복리를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경제적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사회적 책임 기업들이 많아



閔峻基(61년생·서양사학79-85)
삼일회계법인 전무

질수록 우리사회는 풍요롭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南尙我(73년생·산업디자인91-97)가수·3호선 버터플라이 보컬

'신년 소망은, 나의 올해 소망은 무엇까?'라고 질문을 던지고

유머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고파

고민해 보려니 올해라는 단위가 꽤나 무겁다. 그런 나이인 걸까. 살짝 쥐면 부서져버릴 듯한 소중한 올해. 소망. 거대한 압박감.

그래저래 딱히 신년 소망이라기보단 요새 다시 드는 다짐 한 토막.

언젠가 내가 잘 아는 언론인의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다.

일흔이 넘으신 그분은 언제나 재치 있는 농담과 말장난으로 좌중을 '웃겼다'. 그간 어색함을 풀고 활기를 피어나게 하고 유쾌한 하루를 선사했다. 그런 그의 사무실 한쪽 벽면을 모두 차지한 책꽂이의 한 행이 모두 유머 관련 서적으로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와, 유머를 공부하시는 거였구나... 책을 뿔아 훑었다. 밑줄들이 짹짹 동그라미 별표. 와, 유머를 진정으로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였구나...

유머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재미없다. (동어반복이 아니다) 그렇다고 언제나 웃긴 사람, 유머로 뽕뽕 뭉친 사람이 돼야지라는 것은 아니다. 한없이 우울하고 진지하기만 했던 사춘기 시절이 있지 않았던가. 지금이라고

우울함과 진지함이 없어지진 않았겠지만 연륜과 함께 쌓인 유머는 나를 따뜻하게 다독인다. 마치 여든 살 먹은 할아버지의 노래 소리처럼.

그리하여 민망하기로 유명한 나의 유머를 연마해야겠다는 다짐 한 토막.

언젠가 중등부 교과목 중 '유머의 기초'라든지 '유머 실습' 같은 필수 과목이 만들어지기를 소망해 본다.

어디든 달려가 나누고 배우고 싶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면 클래식 음악 프로그램을 통해 존경하는 선배님들, 교수님들과 함께 모처럼 따뜻한 만남과 간증을 나눈 것이 참 감동적이었고, 개인적으로는 예수제자학교를 졸업한 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감사한지 모르겠다.

새해를 앞두고는 언제나 지난 시간에 대한 아쉬움과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교차하곤 하는데, 크리스

마스를 병실에서 보낸 나로서는 새해인 기축년에는 몸이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나의 입에서 감사와 기도가 끊이지 않길 소망한다.

그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분의 마음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되길 바라며 일을 통해서도 동문들과 교제의 장이 더욱 넓어지길 희망한다.

언제였던가, 지난번 총장님 취

임식때 뮤지컬 공연 날과 겹쳐서 진행을 못했던 것이 아직도 아쉽고 후회된다.

부족하지만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새해에는 어디든 달려가리라. 그래서 많은 동문들과 삶과 인생을 함께 나누고 배우고 느끼고 싶다.

인생에 있어서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 떠오른다.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만남과 인연. 기축년 새해에 펼쳐질 좋은 만남과 행복한 일들을



朴琬信(73년생·성악95-99)
문화전문MC 겸 리포터

기대하고 그리보며 나로 하여금 내 주변의 사람들도 행복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짧은 안부의 글을 마친다.



任智姬(85년생·간호03-07)
모교 병원 간호사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 잃지 말아야

지난 2008년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 속에 숨 가쁘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 볼 때 기쁨보다는 한숨이,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던 것 같아 후회가 됩니다.

간호사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2년차에 접어들면서 많이 익숙해진 부분도 있지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느낀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처음 일을 시작하면서 가졌던 포부와 목표를

되새겨 보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 노력 했는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내년 한 해는 새로운 각오로 간호사로서 꿈과 목표를 위해 저 자신을 더욱 단련해 나가는 한 해로 삼으려고 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며 지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긴 인생을 목표를

위해 후회 없이 도전하고 노력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난 해보다 올해가 더욱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모두가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모교 개교 원년 찾기’ 지상토론

먼저 정신적 뿌리 찾기가 되기를

서울대학교의 개교 원년 또는 서울대의 역사, 서울대의 법통에 대한 몇 분의 논의를 읽은 바 있다.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그러한 논의에 한 자리 끼어들어서 새로운 주장을 펼치려는 것이 아니다. 가볍게 부탁을 받고 생각해보니, 이러한 논의는 신중하게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고 나서 생각을 정리해야 할 문제라고 여겨졌다. 그러나 서울대학교의 한 구성원으로서 나의 생각을 말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학문을 하다 보면 자신이 전공하는 학문의 뿌리가 어디에서 비롯하는가 하는 근원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학문도 그렇지만 인문학의 여러 분과들 역시 근대적인 체제로 들어서면서 발전한 것이니, 대개는 일제 강점기의 경성제국 대학에 뿌리를 두는 경우가 많다. 그분들의 성과를 계승해서 오늘날 이렇게 발전된 흐름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일본의 강점에 의한 제도 속에서 그러한 학문이 영위되었을 때 제도적 차원에서 학문적 법통을 운위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놓인다. 왜냐하면 경성제국대학의 어떤 분과들을 우리의 법통에 놓는다는 것은 바로 그 제도를 설립하고 경영한 제국 자체를 인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제국의 후손 중의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식민지 경영으로 뒤쳐진 우리를 발전시켜 주었다고 강변하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 식민지 시대 그들에 의해 주도되었던 학문분과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 우리들은 아직 심각하게 그 의도와 문제점들을 제대로 검토한 적이 없다. 계승의 측면에만 골몰하게 되면 그러한 문제점들을 파헤치는데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했을까 하는 의증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



申 範 淳

(국문76-83)

모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다. 그들은 자신들의 식민지 경영에 유리한 방향을 택했을 것이다.

따라서 법통찾기나 ‘개교 원년’ 찾기는 제도적 측면과 그 제도를 설립하고 경영한 정신을 모두 따져봐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지금까지 나온 몇 분의 논의 중에 서울대 전신을 1895년 고종 칙령으로 설립된 ‘법관양성소’로 하자는 의견과 고구려의 ‘太學’으로 하자는 의견 등이 있다. 모두 나름대로의 타당한 논리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모두를 설득하려면 각기 문제점을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법관양성소’를 최초로 할 수 있으려면 그 기관이 점차 확장되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끌어모은 중심적 역할을 했어야 했는데 과연 그랬는가 하는 부분에서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다. 그리고 고구려의 ‘대학’을 법통으로 삼는다면 서울대의 역사가 1천6백년 이상이 되니 좋기야 하겠는데, 그렇다면 신라와 백제의 교육기관이 아니라 왜 꼭 고구려의 교육기관이 법통이 돼야만 하는가에 대해 확실한 논리를 세울 수 없다.

법통은 그 법을 만든 정신이 무엇인가를

지난해 9월호부터 모교 개교 원년 찾기와 관련해서 모교 법학부 曹 國교수, 교육학과 韓基彥명예교수, 李相赫변호사, 대한민국 헌정회 朴衡圭이사 등의 기고를 소개했습니다. 이번 호에는 모교 국어국문학과 申範淳교수의 옥고를 실습니다. 이 밖에도 이와 관련된 다양한 고견과 기고를 기다립니다.

따질 때 그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서울대학교 법통을 따지기 이전에 서울대학교의 이념과 정신을 먼저 분명히 해야 하지 않을까? 인문학자로서 나는 우리의 교육이념이 지식과 법과 제도를 익히고 응용하는 학생들을 만드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새로운 것들을 창출할 수 있는 인재들을 키우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한 창조적 측면을 키워주기 위해 정신적 훈련을 시켰던 참된 교육제도는 역사상 많이 있었을 것

이다. 그러한 교육기관들은 그 어떤 것이든 서울대학교의 법통 속에 끌어넣을 필요가 있다.

제도만의 연속성을 따져 기원을 찾는 문제는 몇몇 분과끼리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고, 그 자체가 연속성의 논리를 확실하게 확보할 수 없어 미궁에 빠지기 쉽다. 나는 좀더 다양한 논의들이 나와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모습으로 이 ‘개교 원년’ 찾기가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기를 바란다.

己丑年 年賀詩

野鼠盜糧困萬民 (야서도량곤만민) 하고
坊坊曲曲恨歎呻 (방방곡곡한탄신) 이러니
黃牛逐賊得仁惠 (황우축적득인혜) 하여
宇內家家迎福春 (우내만가영복춘) 이라
北僞和南圖核威 (북위화남도핵위) 하고
幾邦敵對飛兵塵 (제방적대비병진) 하니
何時堯舜泰平世 (하시요순태평세) 리요
懇願自今天下閭 (간원자금천하은) 을

들쥐가 곡식을 훔쳐먹어 못사람들을 곤궁으로 몰아
방방곡곡에서 한탄과 신음하는 소리 요란하더니
이제 황소가 도적을 쫓아내어 큰 혜택을 입으며
온 세상은 집집마다 복된 새봄을 맞을 것입니다
북한은 남한과 화해하는 체하며 핵 위협을 꺾하고
몇몇 나라들은 서로 적대하여 전쟁을 일으키니
언제나 요순시대와 같은 태평한 세상이 되오리까
이제부터는 천하가 화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松 巖 朴衡圭

(정치48-57)

대한민국 헌정회 이사

이 年賀詩는 지난 戊子年의 세계적 금융위기와 경제의 침체현상을 들쥐의 양곡도적 현상으로 표현하고, 己丑年이 되어 그 도적을 몰아내어 복된 신춘을 맞을 것을 밝히는 한편, 북한은 대남화합을 위장하면서 핵위협을 꺾하고, 세계 도처에서 전쟁과 테러가 그치지 않으니 태평성대가 되기를 기원하는 뜻을 담았음.

10년 안에 50여 자회사 설립해 1조 매출 기대

동문을 찾아서

盧 政 翼 모교 기술지주회사 사장



모교 기술지주회사 盧政翼(경영72-76)사장은 동네 아저씨 같은 수려 분한 인상에 주먹 깨나 쓸 것 같은 다부진 몸매를 가졌다. 터프한 외모 이면엔 단소와 색소폰을 즐기는 예술 감성이 숨어 있다. 동양화로 대한 민국 미술대전에 입선을 한 경력도 있다. 강함과 부드러움의 조화로 존 립위기에 처했던 현대상선을 5년만에 업계 최고의 기업으로 키워냈다.

그가 월급도 적은 모교로 왔을 때 사람들은 ‘왜 왔을까’ 궁금해했고 ‘무엇을 이뤄낼까’ 기대의 시선을 보냈다. 캐럴도 울려 퍼지지 않았던 크리스마스 이브 점심 때 공화문 한 음식점에서 만났다.

대 담 : 본보 鄭世溶논설위원(내일신문 논설주간)

— 서울대는 어떤 계기로 오셨어요. 한창 나이나니깐 돈 많이 주는 기업도 많았을 텐데.

“사기업에서는 그만 일하고 싶었어요. 지난해 1월 현대상선을 그만뒀는데, 1년 정도 쉬고 퍼블릭서비스 분야에서 기여할 기회가 생기면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지난해 3월 중순 서울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하루 고민하고 결정 내렸습니다.”

— 공채에 응모한 것은 아니었네요.

“그렇죠. 추천 경위는 저도 잘 몰라요.”

— 교수직을 겸임하는 건가요.

“처음 여기에 올 때 총장님께서 교수들과 함께 일을 해 나가려면 교수직이 있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별로 관심을 안 뒀어요. 지난해 10월 회사가 출범할 때 다시 한 번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 직원들은 얼마나 되나요.

“12명입니다. 그 중 네 분은 모교 산학 협력단에서 일을 하던 분들이고요.”

— 기술지주회사란 용어가 생소합니다. 어떤 회사고 설립배경 등을 설명해 주시죠.

“기술지주회사는 법적으로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가 있는데, 우리는 순수지주회사입니다. 자회사를 통해서만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회사죠. 지난해 2월 개정된 ‘산학협력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대학에서도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어요. 주식회사 형태고 전문가를 초빙해 산학협력, 특히 기술의 사업화를 전담합니다. 쉽게 말해 교수들의 연구성과를 수익사업에 활용하는 기업이죠.”

— 재원은 어떻게 마련됐나요.

“산학협력단에서 자본금 69억4천3백만원(기술현물 39억4천3백만원, 현금 30억원)을 출자했어요. 매년 5~6개의 자회사를 세우기 위해서는 최소 자본을 투입한다고 해도 경비를 포함해 15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최소 5년은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은 투자만 이뤄져 초반 단계를 어떻게 유지해 나가느냐가 큰 문제죠.”

— 정부에서 특별한 지원은 없습니까.

“정부에서 좋은 의도로 만들었지만, 현

실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처음 도입한 거라 걸림돌이 많아요. 순수지주회사의 업무영역이 엄격히 제한돼 있어 경비를 보존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게 큰 문제입니다.”

— 청화대 등 해외 대학의 성공사례가 있는데요.

“청화대 기술지주회사의 경우 정부에서 2천억원 이상의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싱가포르에서도 정부에서 적극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뉴질랜드 오클랜드대 유니서비스란 회사는 역사가 오래돼 대학 기부금 등으로 구성된 자금이 꽤 있었고요. 우리는 대학 기금도 적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 2017년까지 50개 자회사를 만들어 총 1조 규모의 매출을 기대한다고 들었는데, 가능한가요.

우는 사업성 여부를 검토해서 편입여부를 고려하려고요.”

— 벤처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성공할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서울대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어디서 하겠습니까. 지적재산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곳이 서울대잖아요. 10여 년 전에 벤처붐이 일고 금방 꺼졌던 이유가 경영을 전문가가 안 했기 때문이에요. 기술만 가지고는 사업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만 가지고 경영에 뛰어 들었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졌고 또 하나는 개발자가 경영에 뛰어 들다 보니 계속 기술을 업그레이드시키지 못한 게 실패의 요인이었죠. 오랫동안 기업에서 경영자로 활동한 경력을 바탕으로 학교에 돈을 많이 벌어드리고자 합니다.”

“모교에 돈 많이 벌어드리겠습니다”

초기 정착단계선 정부 지원 절실

“가능합니다. 그동안 학생과 교수들이 창업한 회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크로젠과 SNU프리스전인데, 이 둘의 경우 시가총액이 상당한 규모예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입니다.”

— 올해도 몇 개의 자회사를 설립해야 할 텐데, 가시화 된 게 있나요.

“1월말에 출범예정인 회사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약대 교수님들의 기술을 활용해 국내제약회사의 외주회사(CRO : Contract Research Outsourcing)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기계 사출 관련 회사인데, 중소기업과 모교 교수들의 기술을 결합해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 위에서 말씀하신 프리시전, 마크로젠 등을 편입시키는 방안은 생각해 보셨나요.

“그 두 회사는 이미 성공한 회사로 규모가 워낙 커서 편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바이오메드나 출범단계에 있는 회사의 경

— 오랫동안 현대에 계신 것으로 아는데 얼마나 계셨죠.

“31년 근무했습니다.”

— 현대에서 구조조정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도 맡으시는 등 요직을 거치셨어요. 당시 성과, 자랑거리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현대에서 오랜 시간을 구조조정본부에서 보냈죠. 鄭周永명예회장을 서포트하는 일이었어요. 현대전자 등 여러 회사를 창업하기도 했지만 구조조정 업무를 총괄하면서 일부 회사를 정리하는 아픈 기억도 있습니다. 보람된 일은 5년 반 동안 현대상선에 있으면서 세계적인 우량기업으로 탈바꿈시킨 일입니다. 부임했을 때만 해도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 하나도 없었고 존립 자체가 상당히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나올 때는 예금 1조원 이상 되는 회사로 탈바꿈했습니다. 직원들이 일치단결해서 얻은 결과죠. 운도 따랐고요.”

— 해운회사 가운데 현대상선은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외형으로 보면 한진해운이 조금 큼니다만, 시가총액은 한진의 3배 정도 됩니다.”

— 현대상선 계열 때 삼성경영으로 유명하신데, 여기 와서도 직원들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니까.

“예. 특별한 일 없으면 점심을 전체가 같이 모여서 먹습니다. 한 달에 한 두 번은 저녁을 같이 하면서 스스럼없이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어려운 회사일수록 구성원간에 신뢰가 깨진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상선에서 ‘호프day’도 열고 편지도 쓴 건 삼성경영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직원들 간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죠. 어려움을 같이 이겨내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한 마음이 됐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학창시절 겨울방학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1~2학년 때는 영등포 문래동에서 야학을 했어요. 3~4학년 때는 과대표를 맡았는데 데모가 많던 시절이라 특별히 한 게 기억이 없네요.”

— 그 때와 비교해 지금 관악캠퍼스는 어떤 것 같아요.

“상전벽해입니다. 마지막 4학년을 관악캠퍼스에서 보냈는데, 그때는 허허벌판이었죠. 지금은 더 이상 건물 지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발전을 했어요. 학생들 분위기도 훨씬 밝아졌고요.”

— 하숙을 하셨나요.

“고등학교 때 천안에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고등학교를 다녔죠. 부모님이 삼청동에 집을 구해주셔서 동생들이랑 함께 있었어요. 2남5녀의 장남입니다.”

— 친한 분들이 누구죠.

“현직으로 알려진 분들 중에는 KB금융지주회사 黃永基(무역71-75)회장, 종근당 李章漢(AMP 37기)회장, 朴峻雨(법학72-76)주 벨기에·EU대사 등과 친해요.”

— 50대 중반에 들어섰는데, 우리나라에서 50대는 어떤 세대인가요.

“끼 세대죠. 저보다 7~8년 선배들이 우리 사회 팽창기에 기업 활동을 열심히 한 분들이라 승진이 굉장히



“어려울 때일수록 구성원간 신뢰가 가장 중요”

☑ 빨랐고 그 자리에 오래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우리 세대에서는 사장까지 올라간 사람이 상당히 적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래 세대가 치고 올라오니 어려운 점이 많았죠. 지금도 어디 모임에 가면 말석인 경우가 많습니다. 선배들 모시는 정신이 있어서 총무 직책을 맡은 친구들이 많아요. 아직은 대접을 못하고 여전히 선배들을 모셔야 하는 낯 세대입니다.”

— 전 세계에 불어닥친 경제 한파로 우리나라도 어려운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동문들에게 덕담 한 마디 해 주시죠.

“살아오면서 느낀 게 있다면 위기가 기회였던 점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어요. 李長茂총장님이 오셔서 발전기금 모금운동도 활성화되고 있고 ‘비전 2025’를 세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술지주회사도 장기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날 인터뷰는 점심식사로 이어지면서 활기를 띄었다. 盧政翼사장은 백세주 한 병을 주문했다.

— 건강해 보이세요. 저는 술 문화는 좋은데 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불혹의 나이가 지났는데 혹을 겁내는 건... (웃음) 저도 무작정 많이 마시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술을 빨리 마십니다. 술 자리에서 2시간 이상을 안 끌어요. 평생을 오전 7시 전에 출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술자리에 가면 2차는 거의 가지 않아요. 노래방도 잘 안 가고요. 술 마시고 노래방 가면 서로 어울려 노는 문화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죽이라 노래만 부르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떠돌고 있고, 마음에 안 들어요. 함께 하는 맛이 있어야 하는데 다들 제 각각이니 갈 마음이 안 생기죠.

기술지주회사 와서 직원들과 어쩔 수 없이 노래방을 가야 했는데, 보이지 않게 통제를 했어요. 연달아 노래를 부르려는 직원에게 쉼과 은근히 압박하고 다 같이 들어 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었죠. 젊은 사람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나이트 분들, 특히 계급장 못 댄 사람들이 마이크 독점이 심해요.”

— 특기가 색소폰·단소 연주라고 들었어요.

“2001년에 회사를 1년 정도 쉰 적이 있어요. 그 때 문화센터에서 그림, 단소를 배웠습니다. 색소폰은 당시 친했던 모 신문사 사장님이 계셨는데 그 분 따라 배우게 됐고요. 친구들 모임에 가면 같이 분위기 띄울 정도의 수준은 됩니다. 동양화 사군자를 배웠는데 2004년 대한민국 미술대전에 입선까지 했어요. 그림을 가르쳐준 선생님이 아호도 만들어 주셨어요. ‘華溪’라고 ‘맑은 물’이란 의미입니다. 사주에 수가 많은데 그것까지 생각하고 지어주셨어요. 호가 있으니까 친구들끼리 술잔을 주고받을 때 참 좋습니다. 퇴직 때 명함이 평생을 가잖아요. 부장으로 퇴직한 친구들은 영원히 부장이 되다 보니, 부르기가 뭐해요. 호를 부르기로 한 다음부터는 그런 어색함



동네 이웃들과 술자리 가장 즐거워

美展 동양화 입선·색소폰도 수준급

이 사라졌죠.”

— 2001년이면 한창 때인데 왜 쉬셨어요.

“그때는 쉬고만 싶었어요. 회사 분위기가 좀 어수선한 면도 있었고요. 평생 휴가 한 번 제대로 못 갔어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1년 푹 쉬었죠. 그러면서 배운 게 참 많아요. 사실 40년 이상을 삼청동에서 살면서 동네에 누가 사는지 몰랐어요. 어느 날 동네 골목을 걸어가는데 어떤 분이 새벽 모임에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를 아마 아셨던 모양이에요. ‘꽃물주기 모임’이었는데, 삼청동 오시면 아시겠지만 길가에 화분이 참 많습니다.

새벽 6시에 만나 꽃에 물주고 생대집에 가서 밥 한 그릇 먹고 헤어지더라고요. 모임에 참석하는 분들끼리 동네에 사는 독거노인도 돌보고요. 벌써 7년 됐어요. 그 모임에 참석하면서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을 모르고 산다. 지역사회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도 다 생업에 바쁜 분들인데 참 열심히 봉사활동 합니다.

요즘 가장 즐거운 모임이 동네 분들과 술 먹는 모임이에요. 여름에는 구멍가게 앞에 좌판을 벌이고 삼삼오오 모여 고기도 굽고 막걸리도 한 잔 마실 때가 많아요. 집에 가다 말고 소주박스 위에 앉아 같이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순대 들고 오고 어떤 분들은 고기 들고 오고.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 동네가 좋네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는 꿈꿀 수 없는 풍경입니다.

“그렇죠. 아파트에 사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옆집에 법무사 한 분이 계신데, 저보다 10살 정도 위예요.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다 사무실, 차 기사를 정리하고 대중교통 이용해 다른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일하고 계신 분이예요. 급게, 멋있게 늙으려면 계급장부터 떼야 한다고 늘 말씀하세요. 장관, 사장하다 나온 동기, 선배들은

—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혹시 동문이 있나요.

“아내와 아들, 딸 있어요. 딸아이가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했어요. 노경희(05졸)입니다. 얼마 전에 동네 분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기도 했어요.”

— 현대 다니시면서 돈은 많이 벌어들였네요.

“봉급쟁이가 다 그렇겠지만, 사장을 지냈으니 조금 나은 편이지요. 욕심을 안 부리면 사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 자격증도 몇 개 갖고 있다고 들었어요.

“공인회계사, 증권분석사, 선물거래증개사를 취득했어요. 공인회계사는 88년에 땀인데, 당시 회사 다니면서 취득한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몇 십명 안 뽑을 때인데, 나이도 가장 많았다고 해요. 실력에 비해서 시험을 잘 봐요. 고3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재수를 하기도 했지만요.”

— 노후 계획은 세우셨네요.

“얼마 전 로타리클럽 모임에서 어느 신문의 칼럼니스트로부터 ‘멋지게 늙는 법’이란 강의를 들었어요. 그 분 말씀이 자기 나이에 0.7을 곱한 나이대로 살라고 하더군요. 60이면 40처럼 살라는 거죠. 요즘 평균 수명대로만 살아도 80 이상을 사는데 예전처럼 생각하고 살면 큰 손해예요. 그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어느 날 불려서 내가 몇 년을 살 지 언제 죽을 지 모른다 그랬는데, 그러고서 30년을 계속 그러고 사신다는 거죠. (웃음) 그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 해요.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다면 바퀴벌레라도 연구해 전문가가 될 걸.’

옛날에는 환갑 지나면 언제 죽을 지 몰랐으니깐 그렇게 밖에 살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또래 중에도 무얼 하면서 지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오전 10시쯤 헬스클럽으로 간 다음 하루종일 그곳에서 운동하고 시간 되면 저녁 먹고 그제 일상인 경우가 많죠. 문화에 대해 훈련받은 게 없어서 그렇죠. 주변에 문화센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서 강의 등록하고 여러 가지 배웠으면 좋겠어요. 저도 배우다 만 단소를 더 익힐 생각이예요. 시간이 되면 다시 그림도 그리고요.”

— 마지막으로 더 하실 말씀이라면.

“우리가 가진 사람에 속한 반면 분명한 역할 모델이 돼주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좋은 선배, 리더가 되지 못했죠. 말로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외쳤지 실천이 따르지 못했어요. 사실 봉사하는 없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해요. 봉사할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다고 하는데 모두 핑계입니다. 뭐 한 다음에 봉사하겠다는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10년 이상 위 세대 분들 중에 회장, 사장으로 퇴직하신 분들은 재산도 꽤 있으실 거예요. 물질로든 경험으로든 행복한 사회를 위해 지금 당장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 오랜 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진=李五峰논설위원·정리=金南柱기자)

그걸 못해요. 꾸밈꾸밈 하고, 또 어떻게 노는 지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할 줄만 알았지 세상물정은 몰라요. 대화주제도 얼마나 빈곤한지 부동산, 주식 뭐 그런 게 전부예요. 돈도 있을 만큼 있는 분들이 돈, 돈 해요. 동네 분들과 술자리를 하다 보면 인생에 대한 모든 주제가 올라오거든요. 아까 위기는 기회란 말을 했잖아요. 현대에서 나왔을 때 인생에 대해 배웠으니 일찍 배운 셈이지요.”

— 나중에 기술지주회사 잘 키워놓고 삼청동장 하면 좋겠어요.

“하라고 하면 할 용의가 있어요. 봉사하려고 구의원도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 월급제가 되면서 희망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안 되었고. 이 동네에 애정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얼마 전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밤이었는데 동네 분이 문을 두들겨서 나가 봤더니, 盧사장 아들이 저기 골목에서 어느 아가씨와 키스하고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웃음) 동네 분들이 그렇게 가까워요. 상추도 나눠 먹고, 팔죽 쫓다고 같이 먹자고 하고.”

(주)삼덕 朴浩田회장

장학발딩 건립기금 10억원 쾌척

지난 12월 30일 (주)삼덕 朴浩田(경영62-66)회장이 부인 金英姬(작곡62-66)동문과 공동명의로 본회 장학발딩 건립기금으로 10억원을 출연하기로 약정하고 먼저 6억5백만원을 출연했다.

앞으로 장학발딩 건립 후 발생되는 임대수익금을 통해 ‘朴浩田·金英姬특지장학회’ 명의로 모교 재학생에게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朴회장은 “오래 전부터 숙제였던 장학발딩 건립기금 출연을 올

해가 가기 전에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장녀 朴祉炫(의류91-95)동문과 차녀 朴素賢(언론정보93-97)동문을 비롯한 가족들도 모두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한 뒤 “영·호남지역의 화합을 위해 영·호남 출신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모교 졸업 후 한국은행에서 근무하다 석탄채광업체인 단양광업 개발과 삼덕연탄 대표를 역임한 朴회장은 지난 1984년부터 아스

콘·레이콘 전문업체인 삼덕을 설립, 수도권에 5개의 아스콘·레이콘 공장을 운영하며 국내 아스콘 전문업체 중 규모와 매출부문 1위를 달리고 있다.

서울·경인 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 연합회장을 역임한 朴회장은 20여 년간 아스콘 및 레이콘 제품에 대한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재활용에 힘써 온 공로로 2000년 대통령 표창, 2002년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1천만원 출연 잇따라

지난 12월 31일까지 본회 장학발딩 건립기금으로 李興鍾(역사교육54-58 前에일여상고)동문이



좌로부터 朴薦壽·金鍾燮·林光洙·朴浩田·孫一根·洪性대동문

1천1백10만원, 李松銀(상학53-57)공인회계사, 미주한국통신사 韓昌燮(정치57-62)사장, 서일합동법률사무소 金平祐(법학63-67)변호사, 가람컴파니 文奎哲(응용화학69-73)대표, 文明局(기계공학73-75 前국방과학연구

소)동문이 각각 1천만원을 출연했다.

장학발딩 건립 후 개인 명의의 기금장학회가 설립되며, 본회 장학금 수여식 때 기금을 출연한 동문이 직접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게 된다. (表)



발전기금으로 10억원 출연을 약정한 李富燮동문이 “다함께 기금 모금에 동참하자”고 건배 제의했다.

공과대학동창회

‘VISION 2010’ 기금 60억 모아

공과대학동창회(회장 許鎭奎)는 지난 12월 1일 서울 강남 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경과보고를 통해 ‘VISION 2010’ 기금 모금에 5백92명의 동문이 총 60억8천만원을 출연했다고 밝혔다.

‘VISION 2010’ 사업은 2005년 南正鉉전임 회장 임기 때 시작돼 2010년까지 공대교육연구재단 기금 1백억원 모금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제1추진과제이다. 이 기금은 재학생들의 해외연수, 교수

연구비 등 모교 공대를 세계 20위권 대학으로 발전시키는 재원으로 사용된다.

이날 총회에서 재선임된 許鎭奎 회장은 “1백억원 모금을 완수한 후에 물러나라는 뜻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 2010년 전에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許鎭奎회장이 회장직을 다시 맡을 수 있도록 설득한 李富燮(화학공학56-60)동문은 이날 발전기금 10억원 출연을 약정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축사를 통해

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회원 참여를 늘리는 방안으로 동문 경조사에 화환 보내기, 홈페이지(www.ccsnua.org) 업데이트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이날 모임에는 朴升漢(지리교육53-57)고문·李敏燮(정치59-65)전임 회장·林正根(의학70-76)회장·鄭泰洙(농업교육81-89)총무·安宰濤(사법87-92)간사를 비롯해 權明久(농업교육68-72)·南相憲(수리학69-73)·徐栢洙(자원공학72-76)·崔國宗·邊知亮(정치78-83)·安奉振(공법81-85)·成煥雨(수리학82-89)·신진수(서양사학87-92)동문 등이 참석했다.

동문 작품 지상전시회



‘소가족－풍요와 평화의 해를 위해’ Oil and Mixed Media, 53×45.5cm

李秉錫作

〈작가약력〉

- ▲58~62년 모교 회화와 졸업
- ▲개인전 10회
- ▲ASIA현대미술전 초대전
- ▲제94회 프랑스앙데팡당국제전
- ▲서울국제현대미술제 초대전
- ▲서울시미술대전 초대작가
- ▲중국 북경 798 현대미술제 초대전
-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운영위원, 서울미술대전 심사위원장 역임
- ▲현재 서울은평미술협회장, 한국미협·서울미협·한국전업미술가협회 자문위원.

법대 19회 동기회

이웃 사랑 실천 ‘봉사통장’ 개설

“2월 영등포 자선병원인 요셉의원에 성금 전달, 3월 신림동 소재 고시생 쉼터 ‘사랑샘’에 성금 전달, 4월 성나자렛 성가원에 성금 전달, 5월 단양야간학교에 성금 전달...’

봉사단체의 사업보고 내용이 아니다. 지난 12월 10일 서울 서초동 법조빌딩에서 열린 법대 19회(61학번) 동기회(회장 吳允德) 이사회에서 보고된 활동 내용이다. 19회 동기회는 친목모임이지만 봉사단체보다 더 열심히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동기회’다.

동기회는 이웃뿐 아니라 매달 입원이나 요양 중인 동문들을 두루 찾아 위로하고 성금을 전해 주고 있다. 봉사 활동으로 친목까지 더욱 돈독해지고 있다.

19회 동기회가 봉사로 뭉치기까지 吳允德회장의 노력이 컸다.

吳회장은 “개인적으로 봉사활동을 해 오다가 동기회 차원으로 확대하면 좋을 거란 생각에 지난해 1월 회장이 되면서 우리 모임의 주 사업으로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동기회는 지난해 4월부터 사랑의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가기 위해 봉사통장을 개설해 일신우리집, 단양 야간학교, 요셉의원, 성나자렛 성가원에 매월 일정 금액을 후원하고 있으며 ‘봉사활동 특별회계’를 만들어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吳允德회장은 “서울대 동문들이 불우한 이웃과 함께 고통을 나눌 때 서울대도 진정한 세계 최고 대학이 될 수 있다”며 “우리 동기회의 봉사 바람이 전 동문 모임으로 퍼져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南)

춘천지부동창회

지역발전 지원금 조성

춘천지부동창회(회장 林正根)는 지난 12월 9일 崔國宗(농학78-82)동문이 운영하는 춘천시내 배나무집에서 송년모임을 가졌다.

林正根회장은 인사말에서 “현재 7백여 동문이 활동하고 있는데, 모이는 숫자는 20여 명에 불과하다”며 “틈날 때마다 선후배들에게 연락해 다음 모임에는 한 사람이 두 명씩 데려올 수 있도록 애교심을 가지고 참여해 달라”고 당부하고 “내년에는 기금을 조성해 불우이웃과 지역사회발전을 지



사범대학동창회

공로패 시상·경매 이벤트 펼쳐

사범대학동창회(회장 卞柱仙)는 지난 12월 4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슈베르트홀에서 송년회를 열고 동창회관 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옥션(경매) 이벤트와 축하공연 등을 펼쳤다.

이날 참석자들은 柳子孝(불어교육68-75)동문이 진행한 옛 부산 피난시절과 을지로·용두동 캠퍼스, 각 학과의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을 보며 시간 여행을 즐겼다.

卞柱仙회장은 인사말에서 “사대 동창회관 건립, 웹사이트 업데이트, 셀룰러폰을 이용한 회비납부 방식 도입, 정관장학대상 제정, 타블로이드판 회보 제작, 홈커밍 데이 행사 개최 등을 임기 중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축사에서 “앞으로도 각종 동창회 행사에 많이 참석해주시고, 장학빌딩 명예의 전당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새겨서 모교 사랑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교 사대 曹永達학장은 “재학생의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강화했으며, 내년 8월부터 1년간 모교 사범대학이 세계사범대학회의의 의장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고 보고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林香淳(수학교육60-64)전임 회장과 河奉玉(사회교육62-66)전임 상임부회장에

게 공로패를 수여했으며, KBS 李炳淳(독어교육67-73)사장에게 축하패를 전달했다.

蔡賢九(체육교육78-82)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여흥시간은 COE합창단 합창, CBS 李廷湜(지구과학교육72-76)사장의 독창, 高潤燮(영어교육65-72)동문의 관소리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송년회에는 李姬鎬 前대통령 영부인, 鄭元植 前국무총리, 李應百·金南祚동문을 비롯한 원로 동문, 본회 孫一根상임부회장, 河舜鳳·李揆澤 前국회의원 등 2백5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FIP동창회

자랑스러운 동문 시상

미래정보기술융합과정(FIP)동창회(회장 金明道)는 지난 12월 2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 한강홀에서 모교 공대 姜泰晉학장 등 7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자랑스러운 동문상 시상식을 거행했다.

이날 제3회 자랑스러운 동문으로 경운에코에너지 韓相基(1기)대표, 텔콤인터내셔널 崔裕燮(2기)대표, 퓨전테크 尹貞子(3기)대표, 이모션 曹希姬(3기)대표, 레스 민경수(4기)상무를 선정해 상패를 수여했다.

부산지부동창회

공로·감사패 수여

부산지부동창회(회장 宋圭政)는 지난 12월 1일 부산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동문 및 가족 4백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문 가족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宋圭政회장은 인사말에서 “2008년은 우리 모두에게 힘든 한 해였지만 그럴수록 하나된 마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우리 국민들의 힘을 믿으며, 어느 때보다 동문들의 역할이 큰 만큼 내년에도 부산 지역과 모교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자”며 힘찬 새해를 기원했다.

이어 宋회장이 동창회 발전을

위해 공헌한 河基成(경제58-62) 명예회장에게 공로패를, 각종 행사를 지원한 영원무역 成耆鶴(무역66-70)사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한편 이날 모임에서 1월 중 신년교례회와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새 명부를 발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부 여흥시간에는 한국미술협회 부산지부 회원들이 출연해 현란한 미술쇼를 펼쳤다. 또 송년 음악회에서 林炳元(기악78-82 바이올린)·李瑄娥(기악90-94 첼로)·김은진(기악93-97 비올라)·이진성(기악95-99 피아노)·황지원(기악95-99 바이올린)동문이 독주 및 5중주를 선보였으며, 林忠珍

(성악81-85 테너)·김종화(성악91-97 바리톤)동문이 ‘사랑의 인사’, ‘향수’, ‘My Way’ 등 명곡들을 열창해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禹遠亨(의학45-56)·文貞奎(건축52-56) 고문, 河基成명예회장, 宋圭政(사학63-67)회장, 朴鳳崙(의학53-59)·姜洙憲(상학58-62)·許鴻(섬유공학58-64)·李禎相(상학59-65) 부회장, 李龍二(무역63-69) 감사, 權鍾大(치의학72-78)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동승클럽

‘신관 김삿갓상’ 전달

문리대 65학번 모임인 동승클럽(회장 宋常熙)은 지난 12월 12일 서울 강남 메리어트호텔에서 송년 모임을 가졌다.

이날 처음 참석한 姜信誠(동물65-69)·金乃元(사학65-69)·백문성(천문기상65-73)·卞光洙(사회사업65-69)·梁永洙(종교65-69)·鄭然彩(화학65-73)·鄭再建(사회65-69)·丁洪植(동물65-69)·崔革(외교65-72)동문을 비롯해 90여 명의 동문이 모여 국악 공연 관람, 빙고게임 등을 즐기며 친목을 도모했다.

특히 동승클럽 홈페이지(www.dongsoong65.net)에 적극적으로 글과 사진을 남긴 동문들에게 ‘현실적 낭만주의자상’, ‘땃글 다상’, ‘늦게 배운 도독상’ 등 재미있는 명칭의 상을 수여해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대상에 해당하는 ‘신관 김삿갓상’은 27개의 시, 수필 등을 올린 金基元(불문65-73)동문에게 돌아갔다.

동승클럽은 3백50여 회원이 있으며 이 가운데 50여 명의 적극적인 동문들이 분기별 포럼, 등산, 테마여행 등을 통해 우의를 다지고 있다. (南)



河회장, 朴重遠동문 부부, 金知秀동문 부부, 林漢鍾동문 부부, 任廷基학장

의과대학동창회

林漢鍾동문에 張起呂상

의과대학동창회(회장 河權益)는 지난 12월 16일 서울 소피텔엠 배서더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송년의 밤’ 행사를 열고 선후배 동문들의 화합을 다졌다.

이날 행사에는 姜信浩·李吉女 명예회장과 朱槿源·權舜赫명예교수를 비롯해 학내외에서 2백여 동문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1부 학술강연회와 2부 시상식, 3부 만찬 겸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함춘의학상 수상자에 美텍사스의대 金義信

(의학66졸)교수, 국립암센터 朴重遠(의학77-84)간암센터장, 모교 신경학교실 金知秀(의학84-92)교수 등 3명을 선정해 상금 1천만원과 상패를 수여했다.

또 제5회 ‘張起呂의도상’ 수상자에 고려대 의대 林漢鍾(의학51-57)명예교수가 선정돼 상패와 업적출판비 1천만원을 받았다. 林漢鍾명예교수는 기생충학 연구에 몰두해 오면서 불우한 이웃을 위한 의료봉사와 저개발국 기생충 퇴치를 위해 힘써 왔다.

시상식을 마친 뒤 동문들은 만찬과 함께 중앙대 무용단의 공연을 관람하며 한 해를 결산하는 시간을 가졌다.

AMPFRI동창회

文榮鐵동문 경영대상 수상

申一汕회장 새 진용 구성 완료

식품 및 외식산업보건 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尹煥植)는 지난 12월 16일 서울 서초 로얄프라자에서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본회 孫一根상임부회장은 “林光洙회장께서 AMPFRI동창회에 기대와 관심이 많으셔서 함께 하려고 했으나 부득이하게 지만 참석해 이 자리를 빌려 축사를 대신하게 됐다”고 양해를 구한 뒤 “전현

직 보대원장, 동창회장들이 거의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한 것을 보니 감격스럽고 총동창회가 벤치마킹해야할 좋은 모임 문화라고 생각한다”며 이날 경영대상 등을 수상하는 동문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또 林語堂의 글을 인용해 “신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었지만 그것을 지켜주는 것은 신이 아니라 음식

솜씨를 가진 사람”이라며 “여기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분들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고 오늘 여러분이 뜻을 모아 장학빌딩 건립기금까지 출연해 주시니 참으로 기쁘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체육대회와 골프대회 등에 금품으로 협찬한 18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동기회를 이끌어온 각 동기회장에게 공로상을 수여했다. 또 자문위원으로 동창회 발전에 조언을 아끼지 않은 역대 회장들에게도 감사패를 전달했다. 가장 공로가 큰 동문에게 수여하는 공로대상은 라셀르 김종진(22기)대표가 받았다.



좌로부터 李承旭·申一汕·鄭海元·尹煥植·孫一根·姜寅求·呂弼東·具本建·朴秉南동문

이날의 하이라이트인 최고경영대상은 김치 제조 및 식자재 도소매업체인 아주푸드서비스 文榮鐵(18기)대표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상은 尹

煥植회장과 裴明燮사무총장에게 돌아갔다.

동창회는 본회와 보대원에 각각 5백만원의 장학빌딩 건립기금과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천안지부동창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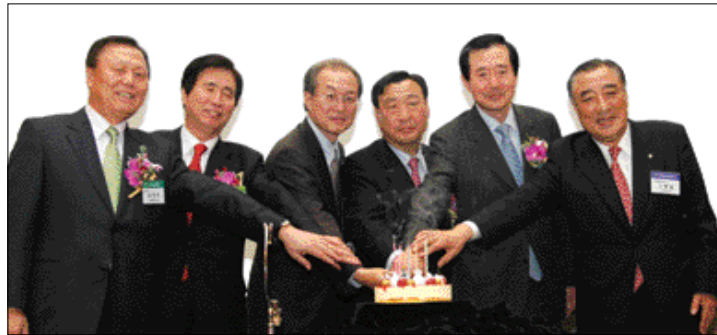
朴壽福·李大鎭 기금 출연

천안지부동창회(회장 金相弼)는 지난 12월 11일 천안시내 알라딘뷔페에서 정기총회 겸 송년회를 개최했다.

한국조폐공사 田容鶴(법학73-77)사장은 축사에서 “국회의원 시절 충남 출신으로 천안시민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했다”며 “지금 은 대전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천안과 이 곳 동문들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어 가진 회의에서 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임원 개선을 통해 金相弼회장을 재선출했다.

한편 이날 朴壽福(농생물56-61)·李大鎭(농업교육65-72)동문이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써달라며 기금을 쾌척했다.



GLP동창회는 송년회에서 李熙範동문 회갑 맞이 깜짝 축하파티를 열었다. 좌로부터 柳昌茂·高興吉·朴泰鎬·李熙範·邊雄田·辛東烈동문

GLP동창회

경영대상·공로패 수여

글로벌리더십과정동창회(회장 辛東烈)는 지난 12월 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2008년을 결산하는 이날 모임에서 지난해 동창회를 빛내고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준 동문들에게

경영대상과 감사패, 공로패를 전달하는 순서를 마쳤다.

경영대상은 동일방직 徐敏錫(섬유공학61-66)회장과 아발론 교육 金明基(16기)대표가 수상했으며 공로패는 金烜一(7기)·李仙熙(14기)前방위사업청장이 받았다.

또 최종선(4기)산악회장, 이호순(13기)골프회장 등 9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AFB동창회

패션경영인대상 시상

패션산업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崔炳五)는 지난 12월 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 다이아몬드룸에서 한국 패션 산업 발전에 기여한 CEO에게 ‘2008년 패션경영인대상’을 시상했다.

5회째를 맞은 이 상의 수상자로 중원어패럴 丁光鎭(1기)대표, 니트패션쁘로미 鄭陽泳(3기)대표, 신원 朴興植(7기)사장, 테크노에어포트를 양호석(8기)대표를 선정해 상패와 순금 배지를 전달했다.

총회를 겸한 이날 임원 개선을 통해 崔炳五회장을 재선출했으며, 수석부회장에 웰크론 이영규(7기)대표를 선임했다. 감사에는 한맥 인터내셔널 金美淑(1기)대표, 지앤지커머스 모영일(5기)대표가 수

고하기로 했다.

송탄지부동창회

회원 명단 정리작업

송탄지부동창회(회장 王俊賢)는 지난 12월 10일 송탄시내 해운일식집에서 金吉洙(약학50-56)·尹泰槩(수의학58-62)·金泰喜(수의학58-63)·李正勳(수의학63-67)·宋致龍(수의학83-89)·沈載勳(수의학84-91)·具成鎬(조소86-90)동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모임을 가졌다.

王俊賢회장은 “격월로 개최해온 모임을 활성화시켜 동창회에 활력을 불어넣자”고 말했다.

한편 동창회는 자체적으로 회원 현황 파악이 힘들다고 판단하고 최근까지 업데이트된 총동창회의 송탄지역 동문 명단과 연락처를 확보해 재정리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南)

제11회 ‘관악대상’ 후보자를 찾습니다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함은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쌓아 국가와 사회에 공헌해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드높인 동문(비동문) 또는 단체를 찾습니다.

동문 여러분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고 여러 이웃 동문에게도 널리 알려 많은 후보자의 추천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시 상 부 문
참 여 상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적극 참여해 기여한 동문 개인 또는 단체
협 력 상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유무형의 헌신과 봉사로 기여한 동문·비동문 개인 또는 단체
영 광 상	사회 공익과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훌륭한 업적을 쌓아 모교와 동창회의 긍지와 명예를 드높인 동문 개인 또는 단체

1. 시상 부문 : 동창회 지표인 ‘참여’ ‘협력’ ‘영광’ 에 따라 세 부문으로 구분
2. 구비 서류 : 추천서, 피추천자의 공적사항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 www.snua.or.kr)
3. 추천서 접수
1) 접수마감 : 2009년 1월 31일
2) 접 수 처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서울대 연구공원 본관 216호
서울대총동창회 사무처(전화 : 702-2233·팩스 : 703-0755)
4. 시상 시기 : 서울대총동창회 정기총회 (2009년 3월 20일)

서울대학교총동창회장 林 光 洙·관악대상 운영위원장 孫 一 根

제6회 서울대 언론인 大賞

“수상 후보자 추천해 주세요”

서울대 언론인 大賞 관리위원회는 제6회 ‘서울대 언론인 大賞’ 수상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서울대 언론인 大賞은 관악언론인회와 서울대총동창회가 한국 언론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큰 서울대 출신 언론인에게 시상하는 상입니다. 서울대 언론인 大賞 후보자를 널리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천대상 : 서울대 출신으로 국내의 신문사 방송사 통신사 잡지사에 근무하는 언론인, 언론사 경영인, 언론 학자, 언론단체 종사자, 언론정책 담당자.
2. 추 천 인 : 1) 신문사 방송사 통신사 잡지사의 대표, 주필, 주간, 해설위원장, 편집·보도국장, 편집장 등 부서장
2) 언론단체의 대표
3) 대학 언론학 학과장, 대학원장
3. 심사대상 : 2007년 12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공적을 원칙으로 하며, 최근 3년 이내의 공적도 참고할 수 있음.
4. 제출서류
1) 추천서 : 후보자의 상세한 인적사항과 이력 및 경력, 공적 개요, 추천 사유를 명기한 자유 양식의 추천서를 작성해 E-mail(snua1969@empal.com)로 접수시켜야 함.
2) 공적 자료 : 주요 기사, 방송 자료, 논문, 공적서를 파일화해서 E-mail로 접수. 필요에 따라 직접 제출 가능.
5. 추천기한 : 2009년 1월 31일
6. 수상자 발표 : 2월 중순
7. 시 상 식 : 2월 정기총회
8. 문 의 : 02)886-2219, snua1969@empal.com

서울대 언론인 大賞 관리위원회



보대원동창회

모교 보대원 50주년 사업 논의

보건대학원동창회(회장 姜寅求)는 지난 12월 4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신세계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모교 보건대학원 50주년 행사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행사 기금으로 5천만원을 쾌척한 姜寅求회장은 “보대원의 관악캠퍼스 이전을 앞두고 이번 행사가 세계 보건학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전 동문이 기금 후원 등 기념사업에 적극 동참해 모교 발전을 함께 이뤄 나가자”고 말했다. 姜寅求회장은 모교 보건대학원 鄭海元원장과 함께 5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총괄위원장을 맡았다.

50주년 기념행사는 오는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관악캠퍼스와 연건캠퍼스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비전 선포식, 건강 캠퍼스 발표회, 동문 가족 초청 만찬, 국제 학술대회, 동창회 학술대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동창회 학술대회는 보대원동창회 산하 3개 단과과정동창회와 박사동우회, 석사동우회에서 각각 한 섹션을 맡아 진행한다.

이날 2부 송년의 밤 행사에서 지난해 보대원을 빛낸 5명의 자랑스러운 동문을 선정해 시상했다. 수상자는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申英秀(의학63-69)사무처

장, 대한보건협회 李承旭(수의학67-71)회장, 국립암센터 李振洙(의학68-74)원장, 서울시 金旻永(보대원72-74)보건환경연구원장, 裴吉漢(보대원75-77)前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장이다.

이날 모임에는 본회 林光洙회장이 참석해 격려사를 했으며 모교 權彝赫 명예교수, 본회 孫一根상임 부회장, 모교 보대원 鄭海元원장, 朴聖培·金大奎·具聖會·申碩鉉 전임 회장, 高應麟·朴亨鍾·鄭文植·白南淵 전임 원장, 관악회 朴明潤 이사, AMPFRI동창회 申一汕 차기 회장 등 80여 동문이 참석해 축하공연, 경품추첨 등을 즐기며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상대 63학번 동기회

부부동반 송년회

상대 63학번 동기회(회장 吳秀吉)는 지난 12월 12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 4층 유니버설룸에서 동문부부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를 개최했다.

2백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동기회는 매년 6월 정기총회, 12월 송년회, 정기 등산·골프모임 등을 통해 친목을 다지고 있다. 홈페이지(www.snu63.net)를 통한 교류도 활발하다.

마산지부동창회

새 회장에 尹德重동문

마산지부동창회(회장 金榮德)는 지난 12월 12일 마산시내 일송초밥집에서 정기총회 겸 송년모임을 가졌다.

이날 총회에서 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 회장에 尹德重(불어교육64-68 경남대 국제언어문화학부 교수)동문을 선출했으며, 총무에 李慶宣(전기공학84-88 노기아TMC 부사장)동문을 재선임했다.

신임 尹회장은 한국프랑스학회장, 한국사립대 도서관협의회장, 경남대 인문과학연구소장·문과대학장·중앙도서관장, 모교 사대동창회 경남지회장 등을 역임했다.

마로니에회

朱剛秀동문 초청 모임

문리대 64학번 모임인 마로니에회(회장 鄭昭盛)는 12월 18일 서울 청계천 인근 음식점에서 30여 명의 동문들이 모인 가운데 송년모임을 가졌다.

이번 모임은 지난 가을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朱剛秀(지질64-68)동문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4년 전 일년 예정으로 이라크 대사로 부임했던 張基浩(외교64-68)동문이 예상을 훨씬 넘는 8백 일간의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귀국해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특별히 이날 신구대학 韓政浩(조소64-72)교수가 잔조 출연해 멋진 색소폰 연주를 들려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날 행사를 위해 金基奎(식물64-68)동문과 金永文(사학64-69)동문이 대구에서, 權武一(철



마산지부 尹德重회장



물리학부 鄭明世회장

물리학부동창회

鄭明世회장 선임

물리학부동창회(회장 崔德隣)는 지난 11월 28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덕인 鄭明世(물리60-65)명예회장을 선출했다.

또 제18대 국회의원으로서 당선된 許元齊(물리70-74)·朴英娥

학64-68)동문이 제주도에서 올라와 자리를 빛냈다.

AMPP동창회

골프동우회 결성

해양정책최고과정동창회(회장 南正明)는 지난 12월 12일 서울 대방동 해군회관 별관에서 1백20여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를 개최했다.

동창회는 최근 회장단 모임에서 연회비를 10회 납부하면 이후에는 면제하기로 의결했으며 골프동우회를 발족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기로 했다.

불어교육과동창회

학과 50주년 행사 논의

불어교육과동창회(회장 趙弘來)는 지난 11월 20일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정기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서 학과 개설 50주

(물리79-83)동문에게 축하패를 수여했으며 그동안 동창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朴俊亨(물리67-71)·權熙珉(물리70-74)동문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모임에는 인기 탤런트로 활동하는 재학생 이상윤(물리전문00학번)군과 프로바둑기사로 활동하고 있는 오주성(물리전문07입)군도 참석해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년을 맞아 사진이 수록된 명부 및 기념 책자 발간, 사은 행사 개최, 홈페이지 개설 등의 사업을 논의하고 오는 9월에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활성화 방안으로 매월 두 차례 관악산 등반 모임, 정기 테니스대회 및 바둑대회를 갖기로 했다.

OB합창단

콘서트 수익금 기부

모교 합창단 출신 동문들로 이뤄진 ‘OB합창단’이 지난 12월 22일 모교 관악캠퍼스 문화관에서 나눔 콘서트를 열고 수익 전액을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했다.

이날 공연에는 관악구 다문화 가정 어린이 2백여 명을 비롯해 1천여 관객이 모인 가운데 元鍾洙(성악85-89)동문의 지휘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뽐냈다. OB합창단은 2006년부터 매년 나눔 콘서트를 열고 공연 수익금을 아름다운 가게에 출연해 왔다. 〈南〉

관악무역인회 柳東林회장

(두루무역 대표)

지난해 12월 8일 관악무역인회 총회에서 새 회장에 두루무역 柳東林(공업교육 68-72)사장이 선출됐다. 1천3백여 회원을 뒀던 과거와 비교해 현재 관무회는 4백50여 회원만 남았고 그나마 모임에 참석하는 동문은 30명을 넘기 힘들다. 한국수입업협회의 힘이 약해지면서 관무회도 덩달아 작아졌다. 관무회는 한국수입업협회에 소속된 동문들로 구성돼 있다.

－ 힘든 시기에 회장을 맡았는데.

“환율 급등으로 수입업을 하는 사람들이 무척 힘든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회사도 어려운데 이 모임에라도 나가면 선배들을 통해 새로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을 것 같아요. 다행히 적은 숫자나마 골프 모임 등을 통해 꾸준히

만나고 있으니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나아갈 방향이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 활성화 방안은.

“한국수입업협회에서 관무회의 역할이 있을텐데, 그 일을 찾아가다 보면 모임 활성화가 자연스럽게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개선시키는 일 등을 할 수 있죠. 또 어떤 물품을 수입할 때 개인 이익이 아닌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해 국가에 필요한 물품을 우선 수입할 수 있도록 수입업협회에 건의할 수도 있겠고요.”

－ 관무회 특징이

“사회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찾겠다”

다. 단순 친목단체란 의식에서 벗어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려고요.”

－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예를 들어 세미나 등을 열어 수입에

라면.

“회원 대부분이 크든 작든 한 기업의 오너라는 점이예요.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맨 땅에 헤딩하듯 도전정신 하나로 살아온 분들이죠. 과거에 비해 모교나

총동창회에 기여하는 면이 작아졌지만 곧 본 궤도에 올라 갈거라 믿어요. 총동창회에서 많은 직능단체 중에 우리 모임을 받아준 이유가 있을텐데 그 기대에 부응해야죠.”

－ 마지막으로 동문들에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데 우리 동문들이 앞장섰으면 좋겠어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벤처정신을 발휘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돌파구를 우리가 열어야 돼요. 재학생들도 취업하기 위해 발버둥만 치지 말고 비즈니스 세계에 뛰어 들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를 바랍니다.”

신임 柳東林회장은 경동고와 모교 졸업 후 공작기계, 정밀 측정 장비 등을 수입, 공급하는 두루무역을 설립했다. 2006년 국가 산업 및 무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산업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지난해 창립 30주년을 맞아 중국, 러시아, 브라질 등지에 지사를 설치, 글로벌화를 추진 중이다. (南)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ACAD동창회 李廷益회장**

(서광종합개발 대표)

지난해 12월 10일 개최한 ACAD(국가정책과정)동창회 임시총회에서 새 회장에 서광종합개발 李廷益(ACAD 34기)대표가 선출됐다. 동기회장·수석부회장을 거쳐 2천3백여 회원의 수장을 맡게 된李회장은 “1997년 IMF때 모 로타리클럽 회장을 맡은 적이 있는데, 회원 수가 반으로 줄고 봉사단체의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어려워 현상 유지하느라 힘들었던 기억이 떠오른다”며 “그때의 경험을 토대로 ‘모든 동문이 회장’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협조하고 참여해 힘차고 활력있는 동창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 동창회만의 자랑이 있다면.

“우리 과정은 최고급 관료들이 각 분야



겠습니다.”

－ 여러 대학동창회장을 맡은 바 있는데, 비결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봉사단체는 크게 나눠 라이온스클럽과 로타리클럽 그리고 학교 동창회 모임이라고 생각해요. 봉사인은 남을 위해 희생 봉사하면서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두 가지 모두 부족한데 어떻게 맡게 됐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임기중에 회보·회원수첩 제작”

별로 모여들기 때문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인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치인이 회장을 맡아서 그런지 분위기가 딱딱했으나 李秉俊전임 회장께서 취임한 이후로 기금도 늘어나고, 참여 인원도 배나 증가해 내실과 분위기 모든 면에서 큰 발전을 이뤘습니다. 특히 2회에 걸쳐 자랑스러운 국가정책인 대상 수상자 모임을 별도로 두고 있어 많은 동문들이 참여하는 데 큰 자국이 되고 있죠.”

－ 새해 사업계획은.

“최근 자랑스러운 국가정책인 대상 시상식을 개최하지 못했었는데, 이를 다시 부활시켜 분위기를 쇄신하겠습니다. 또 정보교류를 넓히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회보를 재발행하고, 임기 내에 회원수첩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친목모임으로는 골프대회를 개최해 각 기별대향 시합을 시행하는 등 동창회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

(웃음) 굳이 말씀드리자면 2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라이온스 정신이 남아 있다고 할까요? 어느 모임이건 결석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직급에 맞는 역할을 해온 것이 비결이 아닐까 싶어요.”

－ 회사 소개를.

“지난 35년간 큰 탈없이 주로 항공사업 관련 건설 전문회사를 운영해 왔습니다. 한 때 사업의 일부를 대기업의 권력과 힘에 눌려 빼앗겼다가 정의를 내세워 1년만에 되찾아와 관련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 그러한 욕심과 성실함을 인정받아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던 기억이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李廷益회장은 연세대 AMP동창회장, 단국대 대중문화예술대학원 동창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라이온스클럽·로타리클럽과 민주평통자문회의·민주통일자문위원회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表)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AMPFRI동창회 申一汕회장**

(나노카보나 대표)



－ 계획 중인 역점 사업은.

“우선 과정 입학생 수를 늘리는 일입니다. 중반 기수까지는 40~50명이었던 과정생이 지금은 25명 정도로 줄었어요. 우리 과정에 대한 가치를 높여야 할 것 같아요. 여전히 외식산업을 식당업 쯤으로 여기는 풍토가 있죠. 외식산업이란 말 그대로 이제는 기업화됐고 많은 회원 업체들이 수백명의 종업원을 두고 큰 기업 못지 않은 매출액을 올리고 있습니다. 음식을 통한 국위선양은 물론이고요. 외식산업 박람회에 회원사로 구성된 AMPFRI관 설치 등을 통해 위상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신입생이 50명을 채우지 못하면 환영회도 안 할 작정입니다.”

지난해 식품 및 외식산업보전 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 임시총회에서 제12대 회장에 나노카보나 申一汕(14기)대표가 선출됐다. 尹煥植전임 회장이 온화한 성품으로 회원들을 독려했다면 申一汕회장은 카리스마 넘치는 에너지로 역동적인 사업을 펼쳐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역삼동 사무실로 찾아가 소감과 포부를 들어봤다.

－ 올해가 모교 보건대학원 개원 50주년

인데.

“중요한 시기에 회장을 맡게돼 부담도 되지만 동창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기회로 생각하고 열심히 땀 생각입니다. 8백여 회원을 둔 단체의 수장으로서는 큰 자긍심을 느낍니다. 전임 회장들께서 만든 틀 위에서 내실을 다져나가겠습니다.”

－ 동창회 자랑을 한다면.

“우리 동창회만큼 자주 뭉치고 회비를 적적 내는 곳도 드물 겁니다. ‘회비를 안 내면 동문 자격을 박탈한다’는 조금은 가혹한 내규를 마련해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받은 것에 걸맞게 대우를 확실히 해 줍니다. 체육대회, 골프대회, 송년회 모임을 하면 보통 2백명 이상 참석합니다. 이번에 총동창회 장학빌딩 건립기금으로 5백만원을 내놓기도 했는데,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런 곳도 드물지 않아요?”

－ 외식과정 동문들에게 한 말씀.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열정을 갖고 노력을 하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의기소침해 있지 말고 자기개발에 더욱 매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申一汕회장은 숯을 소재로 한 식기자재를 제조, 납품하다 본 과정과 인연을 맺었다. 최근에는 독보적인 탄소 성형체 기술을 바탕으로 숯 침대 개발에 주력하며 돌 위주의 기능성 침대 시장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탄소 성형체 기술관련 특허만 50건, 제품은 1백80여 가지에 이른다. 이런 노력의 대가로 2003년 제38회 발명의 날에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지난해 3월에 제10회 장영실 국제 과학문화 대상을 수상했다. 가족으로 부인과 사이에 남매를 두었으며 사무실에 본인 서예 작품을 걸어둘 정도로 서예에 조예가 깊다. (南)

화제의 동문

서일합동법률사무소 金平祐변호사

“로스쿨에 맞춰 변호사 職域도 확대해야”

오는 3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2천여 명의 신입생을 받아 개원한다. 3년 후면 졸업생 중 상당수가 변호사 자격을 취득, 법조계에 진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로스쿨 제도 도입에 따른 법률시장 시스템엔 변화가 없어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 서일합동법률사무소 金平祐(법학63-67)변호사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미국은 변호사의 업무범위가 넓기 때문에 변호사 숫자에 민감하지 않지만 우리는 변호사 직역이 수사, 재판, 국제거래 업무 정도로 제한적이라 숫자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변호사 숫자만 증가하고 직역이 계속 제한되면 수년 전 의약분업 파동 때의 젊은 의사들처럼 식발투쟁을 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金변호사는 “변호사가 될 때까지 수천만 원의 학비를 대출 받는 학생들에 대해 생활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대출금 상환을 연장시켜줘야 한다”고 말한다.

“지금 젊은 변호사 수백명이 신용불량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사법연수원을 나오기까지 평균 5년 이상을 백수로 지내다 보니 은행 빚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료 후에도 변호사로 자리잡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 빚을 내 사무실을 차린 후 돈을 벌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경우죠. 다른 건 몰라도 학자금 대출은 유예기간을 길게 줘야 합니다.”

소설가 金東里선생의 차남

현대소설의 거목 金東里선생이 金동문의 부친. 경기고교시절 이과였으나 부친 권유로 법대에 진학해 수석 졸업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잘 쓰는데 너는 왜 못 쓰느냐’ 그런 말이 부담스러워서 문학 쪽은 일찍 접고 다른 분야로 갈 것을 생

각했습니다. 선친 작품 가운데 ‘사반의 십자가’를 가장 좋아합니다. 인간 내면의 고뇌라 할까. 모교 李長茂총장과 동북아역사재단 金容德이사장이 친구로 50년 가까이 단짝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제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민사지법, 충주지원 등에서 판사를 하면서 82년 일찌감치 변호사 길로 들어섰다.

“하버드 로스쿨 수료 후 변호사 개업을 했어요. 변호사가 시민의 입장에서 권력과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자유인이란 생각에서였죠. 판사보다 적성에도 맞았고요. 제게 ‘자유’란 말은 가장 소중하고, 삶 그 이상이지요.”

올해로 만 27년. 서슬 퍼런 5공 시절 국제상사 해체 사건의 위헌 판결과 신군부의 재산 압수에 대해 불법 판결을 이끌어내 주목을 받았지만 지금 법조계 현실을 보면 안타까운 게 한 둘이 아니라고 했다.

그가 2월 말 실시되는 제45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냈다. 金동문은 변협 사무총장을 지낸 바 있다. 사무총장 재직 때 ‘직능단체 강제가입 폐지조항’으로부터 변협을 지켜내 변호사들의 이탈 없이 지금의 변협을 유지시킨 게 보람이라고 했다.

金동문은 “변호사업계가 너무 어려운 처지에 있어 이를 타개할 방안을 찾기 위해 나섰다”고 했다.

그의 출마변은 이렇다. “첫째는 회장 선거제도가 간선제여서 전국 변호사들의 힘을 통일시킬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 변호사 직역확대를 하려면 외부 세계를 잘 알아야 합니다. 다양한 사회 경험 없이는 새로운 직역을 만들어 낼 수 없어요. 지금까지 변협에서 일했던 분들이 서초동 중심의 경험밖에 없어서 시각이 좁지 않았나 싶습니다.”

金동문은 준법시스템 도입, 변호사 법정



설치, 아시아태평양 중재센터 유치 등을 주요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현재 금융기관은 금감원이 준법시스템을 제도화하고 있으나 법을 가장 잘 아는 변협에서 인증제를 도입해 공공기관까지 준법 감시 기능을 확산시키자는 것이다.

그는 “준법시스템 인증제는 각 금융기관, 공공기관들이 얼마나 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매뉴얼화해 등급을 매겨 공개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각 기관들의 준법시스템이 향상되고 변호사들의 직역도 다양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 법정’은 소액 생활 분쟁을 변호사들이 해결하는 제도. 그는 “몇 백만원의 소액 생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몇 달을 기다리며 법원을 들락날락하는 건 낭비”라며 “변호사 법정을 만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많은 변호사들이 일반인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했다.

법조일원화·정보 공개 주장

“30년 전 하버드 로스쿨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들이 파트타임 법관으로 활동하는 것을 인상깊게 봤습니다. 작은 문제들까지 일일이 판사가 재판할 필요가 없거든

요. 판사는 어려운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작은 생활문제들은 변호사들도 재판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동네에 생활법정을 설치하면 변호사 일도 늘어나고 시민들도 아주 좋아하겠죠.”

‘아시아태평양 중재센터’ 유치는 변호사의 직역확대는 물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도 높일 수 있는 제안이다. 중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지역이 됐지만 사법제도는 아직 갖춰지지 않아 중국에 진출한 많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분쟁에 휘말리는 게 다반사. 이에 따라 중국과 가까운 우리나라가 중재센터를 유지하면 많은 기업들이 한국에 와서 법률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金平祐동문은 이외에도 사법제도 개선에 대해 할 얘기가 많은 듯했다. 특히 법조일원화, 사법정보 공개를 강력 주문했다.

“법조일원화는 예전부터 논문 등을 통해 주장했던 내용인데, 젊은 사람이 판사를 한다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경륜 있는 사람이 판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사법정보 공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공개되지만 1, 2심 판결은 변호사와 일반인에게 공개가 안 되고 있거든요. 사생활 보호가 철저한 미국도 판결문을 비롯한 준비 서면, 답변서, 상고이유서 등을 모두 공개합니다. 법치문화 발전을 위해서 꼭 공개해야 합니다.”

그는 변호사 개업 후 서울변호사회 섭외이사·외국법연수원장, 변협 사무총장, 사법개혁 연구위원장, 대한공증협회 부회장, 세계한인변호사회 회장, 서강대 법학과 교수, 한국 하버드 로스쿨 동창회장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변협은 대법원장과 특별검사 추천은 물론 공공기관 등에 법 관련 심의위원들을 추천하고 시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변호사의 상머슴을 자처한 그의 좌우명은 정직과 겸손이라고 했다.

(李相起논설위원·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동문기업 탐방

(주)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鄭煥均사장

“유니크한 발상과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건축업계의 특성상 저보다 나이 어린 임원이 60~70%정도 됩니다. 젊고 의욕 넘치는 전문 인력들이 조직을 이끌어간다고 할 수 있죠.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의견개진이 가능해 어떤 상황에서도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죠.”

체계적 조직시스템·교육 ‘자랑’

외형적 성장과 함께 희림은 기업형 설계 사무소로 내실을 다지기 위한 조직시스템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직급별·직무별로 체계적인 사내·외 교육을 시행하고 사내 강사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능력 함양은 물론,

동부화재해상보험(주)



金順煥대표

지난해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대표 金順煥 AMP 59기)는 세계적인 보험회사 전문 신용평가기관인 A.M. Best로부터 2007년보다 한 등급 상향된 A등급을 획득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金順煥대표는 2004년 동부화재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변화와 도전을 통한 차별화된 Top 2 달성’이라는 목표 아래 인력과 영업

부서에 자원했다.

“주변에서 왜 좋고 편한 길을 버리느냐고 했지만 저는 그때 어렵고 힘들게 영업 현장에서 쌓은 경험들을 잊지 않고 있어요. 제가 보험업계에서 대표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때의 현장 경험들이 중요한 자산이 됐죠.”

이후 金대표는 자산운용, 교육, 인사, 기획실 등 다양한 부서를 거치면서 보험업 전반에 대한 실무를 익힐 수 있었다. 이러한 기본 실력과 지식 때문인지 동부화재는 업계 최고 수준의 생산성, 본업 경쟁력을 구축해 오고 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보험은 상품 자체나 보상 서비스 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긴급출동 서비스는 10분 이내 출동률이 92%에 이를 정도로 고객들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해 높은 만족감을 주고 있죠.”

꾸준한 상품개발과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실적으로 金대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프로미봉사단’ 등 사회공헌 힘써

“아무래도 자동차보험이 주요 상품이다 보니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MBC, KBS, 교통방송 등 연간 1천회 이상의 방송을 통해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金대표는 2006년부터 사내에 ‘프로미봉사단’을 구성해 직원들과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전국 8개 지역에 프로미봉사단과 봉사 동호회를 구성했어요. 그래서 재난구호활동과 농촌 일손 돕기, 보훈 대상자 후원 등 직원들의 자발적인 봉사를 장려하는 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했죠.”

또 2006년 4월부터 임직원 급여의 잔돈과 회사의 기부금으로 ‘프로미 하트펀드’를 조성해 1억7천 만원을 모금했으며, 이는 각종 봉사 및 기부활동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쟁이 심화되는 미래사회 속

세계 신도시 설계 잇따라 수주

전 세계 신도시 설계와 랜드마크 건물의 디자인을 입히는 건축설계업체로 자리매김한 희림의 해외시장에서의 선전은 눈부시다. 3/4분기 실적만 하더라도 해외설계 관련 매출액은 1백82억원으로 3분기 전체 매출액의 42.4%를 차지한다. 2007년 총매출액은 1천2백1억원, 2008년에는 1천7백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7년부터 베트남 하노이의 랜드마크 타워·외교부 신청사, 아제르바이잔 바쿠의 7성급 호텔과 크레센트 시티, 두바이 마잔 주거지역·워터프론트·시티 오브 아라비아, 아부다비 사디야 마리나 주거 프로젝트, 미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 세워질 크레센트호텔 조감도

해외시장 개척·젊은 조직문화 이끌어

국 LA공동주택 신축공사, 그밖에 아시아, 미주 지역 등을 포함해 해외 수주액이 1천억원을 돌파했다. 유럽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건축종합잡지 ‘Building Design’ 2008년 1월호에는 일본 최대 건축설계회사인 니켄세케이(Nikken Sekkei)에 이어 아시아·태평양(Pacific Rim)지역 2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처럼 희림이 불경기에도 선전할 수 있었던 것은 국내 어느 건축설계업체보다도 먼저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포화상태였던 국내시장에 비해 해외시장은 그야말로 블루오션이었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2001년 홍콩 하우징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모색한 결과 지금의 명성을 얻게 됐죠.”

회사의 젊은 조직문화도 희림의 성장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돈독한 유대관계 형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매년 직원들과 함께 사랑의 집짓기 운동에 참여해 앞으로 사회공헌 활동도 본격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희림은 오는 2010년까지 해외매출 비중을 50%까지 올려 매출 2천5백억원 규모의 세계 10대 건축설계기업으로 등극하겠다는 목표로, 계속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해외 신도시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鄭煥均동문은 “은사이신 모교 건축학과 李光魯명예교수님께서 ‘건축사는 의사나 변호사 보다 행복한 직업이다. 의사는 아픈 사람들이 찾아오고, 변호사는 억울하거나 불쾌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건축가는 꿈을 이루고 싶은 사람들이 찾아오니 이런 보람있는 직업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 꿈을 계속해서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表)



동부화재가 위치한 서울 대치동 동부금융센터 빌딩

차별화된 경영혁신으로 고객 종합관리

채널, 경영효율, 시스템, 기업문화 등 모든 면에서 차별화된 경영혁신 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

이러한 성과를 거둔 것은 자본수준, 뛰어난 실적, 적절한 투자 영업으로 기업을 이끌어온 金順煥대표의 경영 능력 때문이다.

긴급출동 서비스 만족감 높아

金대표는 보험이 흔하지 않았던 1972년 당시 동방생명(現삼성생명)에 공채 1기로 입사했다.

“처음 입사해서 수학전공 때문인지 전산실에 발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조직 내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보다는 회사에 직접적인 이익을 주는 일이 하고 싶었죠.”

이러한 개척정신과 도전정신으로 金동문은 다른 동료들이 꺼리는 보험회사의 영업

에서 우리 기업은 새로운 사업모형을 개발하고 글로벌 트렌드에 대응하는 종합금융화 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보험회사의 이미지에서 탈피해 고객의 자산과 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금융회사로서의 브랜드 이미지를 확보할 것입니다.”

신규 해외거점 확보 및 블루오션 시장 개척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金대표는 보험업계의 일인자로서의 다짐을 전했다.

“새로운 부서에 배치될 때마다 저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기회를 잡기 위해 항상 공부하는 자세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오른 것은 기회가 왔을 때 탄탄하게 쌓은 실력을 바탕으로 부서업무에서 일인자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가 아닐까 싶어요.” (榮)

아시아대학 중 종합 8위 기록

미국 ‘U.S. News’ 분석 결과

모교 소식

모교(총장 李長茂)가 최근 아시아 대학을 상대로 한 종합평가에서 8위를 차지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인 U.S. News and World Report가 유학

관련 컨설팅을 담당하는 다국적 컨설팅 기업 ‘QS’의 세계 최고 대학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아시아 지역에서 도쿄대가 1위, 모교와 북경대가 공동 8위, 칭화대가 10위에 랭크됐다.

국내 대학 가운데는 모교가 유일하게 10위권 안에 들었으며 교 토대, 홍콩대, 싱가포르 국립대

등이 2~4위에 올랐다.

모교는 이번 평가 항목 중 동료 평가와 재학생 수준 부분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국제화 시설 및 국제학생 유치 부분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올해 영국 ‘더 타임스’가 ‘QS’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 세계대학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모교가 51위(2007년)에서 한 단계 오른 50위에 올랐으며 1위는 하버드대, 2위는 도쿄대 순이었다. 따라서 세계대학 중 1백위권 안에 든 국내 대학은 모교와 카이스트(95위)뿐이었다.

농업생명과학대학

상록연구대상·학술상 시상



金剛東교수

농업생명과학대학(학장 朴憲雨)은 지난 11월 26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 무궁화홀에서 제 16회 상록연구대상 및 제8회 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상록연구대상은 식물생산과학부 金剛東(농학62-66)교수, 학술상



李庸煥교수

은 농생명공학부 李庸煥(농업교육 63-67)교수가 수상했다.

金교수는 1987년 모교에 부임해 분자유전학, 유전자 조작론 등을 대학원 공통과목으로 개설했으며, 1992년부터 영어로 강의를 하고 있다. 또 투자유치를 통해 농생대

공동기원(NICEM)을 신설했으며 1999년 식물분자유전육종센터(SRC)를 설립했다. 뛰어난 연구 성과와 함께 다학제간 협동연구의 활성화, 국제경쟁력 고양, 고급 연구인력 양성 등의 공로를 인정 받았다.

李교수는 1995년 모교에 부임해 식물병리학총론, 식물균병학 등의 강의와 연구를 통해 식물병리학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또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식물병 중 하나인 벼도열병을 대상으로 분자생물학 및 유전체학 연구 기법을 이용해 식물병 발생 매커니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왔다.

이 상은 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 韓仁圭회장이 교수 재임시절 교육연구재단에 출연한 1억원을 기초로 농생대 및 대학 발전에 공헌한 교수에게 수여하고 있다.

경영대학

거듭나기 위한 첫 ‘성과보고회’



좌로부터 郭守根·李鎮芳·金英大동문

경영대학(학장 郭守根)은 지난 12월 1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인 터컨티넨탈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첫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郭守根학장은 인사말에서 “일반 기업들이 매년 경영성과를 보고하듯이 경영대학도 한 해 동안 세운 목표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설명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년간 경영대는 캠퍼스 증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 교육 시설과 행정서비스를 개선했으며,

대외관계 강화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洪龍濤상대동창회장, 金英大경영대학원동창회장, 金光石 AMP동창회장 등이 경영대를 위한 발전기금 모금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자고 격려했다.

이날 대한해운 李鎮芳(경영67-71)회장이 제2회 경영인대상을 수상했으며, 한국알콜산업 池昌壽(상학55-59)회장, 엑스페에제 朴哲洙(경영 83-87)상임고문, IMMN파트너스 宋寅準(경영85-

90)대표, 태창플랜트 宋焉基(AMP 28기)회장, 태창물산 金光聲(대학원77졸)상임고문 등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경영대는 지난 2007년 ‘비전 선포의 밤’을 개최하고 10년 내 세계 10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한 10대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세계 최대 기업사례 유통기관인 유럽의 ECCH와 제휴협정을 맺었으며, Global MBA과정 2기생들의 연봉이 이전직장에 비해 60%이상 오르는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 또한 경영대학의 중장기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경영대학 발전위원회’를 설립한 바 있다.

삼성전자 尹鍾龍상임고문

모교에 발전기금 10억원 쾌척

지난 12월 4일 삼성전자 尹鍾龍(전자공학62-66)상임고문(사진 右)이 모교 발전기금 10억원 출연을 약속했다.

모교 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등을 맡고 있는 尹동문은 관악 캠퍼스 총장실에서 열린 약정식에서 “앞으로 국가와 사회를 이끌어 나갈 글로벌 리더와 세계적인 인재를 배출해 달라”고 출연동기를 설명했다.

이에 모교 李長茂총장은 “이번 기부는 기초학문 강화와 인재 육성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왔던 모교의 노력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성과의 시작”이라며 “이를 통해 모교가 세계 수준의 업적을 이뤄내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약정식에 이어 尹동문은 생명과학부 金빛내리(미생물88-92)교수 연구팀을 방문해 재학생들을 격려했으며 “응용과학도 중요하지만 이는 기업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응용학문보다는 기초과학 등 순수학문에 더 많이 투자하고 대학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金교수는 유전자 제어에 관여하는 새로운 종류의 RNA분자가 형성되는 단계 규명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여성 과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2008 로레알-유네스코 세계 여성과학자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편 모교는 이번 기금을 바탕으로 세계 수준의 연구 지원, 스타급 인재 육성, 해외석학 초빙 등 ‘초일류 인재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간호대학 학장에 宋美順교수 선임



지난 1월 10일 간호대학 학장에 宋美順교수(사진)를 선임했다.

신임 宋학장은 1970년 모교 간호학과에 입학, 1974년 졸업했으며, 1981년 美위스콘신대에서 간호학 석사, 1991년 모교 대학원에서 간호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모교와 美위스콘신대 병원 간호사를 거쳐 1981년 모교에 부임해 美텍사스대 방문교수, 모교 간호대 부학장 등을 맡은 바 있다.

치과대학 학장에 鄭弼薰교수 선임



지난 12월 29일 치과대학장 겸 치의학대학원장에 鄭弼薰교수(사진)를 선임했다.

신임 鄭학장은 1973년 모교 치의학과에 입학, 1979년 졸업했으며 1987년 모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9년 모교에 부임해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재무이사,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기획이사, 공직치과의사협회 공보이사 등을 역임했다. 〈榮〉



선배님, 아세요?



다양한 상징물 ㉓ 원자핵공학과 학생 추모비

모교 관악캠퍼스 공과대학 실험동(31동) 옆에 세워져 있는 故 金玪永(원자핵공학89-93)·金永煥(원자핵공학93-97)·洪英傑(원자핵공학95-99)동문의 추모비. 1999년 9월 18일 당시 석·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세 동문은 바위를 부수는데 사용하는 다이너마이트를 대체할 새로운 폭발물을 개발하던 중 사고로 사망했다.

이 사건으로 전국 이공계 실험실의 안전문제가 환기되면서 실험실 안전을 위한 세미나가 열리고, 실험실 보수 등이 이뤄졌다.

고환율에 도서관 자료구입 중단

柳武鍾동문 도서관구입비 3억원 쾌척

〈모교 중앙도서관 학술지 구독 예산〉

	2007년 예산	2008년 예산
원화 예산	49억 8249만원	53억 2510만원
US달러 환산	535만 7422달러	409만 6164달러
구독가능 종수	2만 1810종	1만 5585종

모교 중앙도서관(관장 徐敬浩)이 최근 고환율과 경기 침체로 인해 도서관 자료를 구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앙도서관은 국내 최대 도서 소장량을 자랑하고 있으나 얼마 전까지 단행본 구입을 못하고 있으며, 학술지나 전자자료 등의 경우에는 구입이 중단된 상태이다.

2008년 학술지 구독예산은 2007년에 비해 약 3억4천만원이 인상됐으나 가파른 환율상승으로 인해 학술지를 구독하기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표 참조〉

이렇게 외국저널 구독이나 원서 보유량이 외국의 유명 대학에 비해 현저히 뒤처지는 현실에서 도서관 구입량 감축에 따라 도서관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환율변동 추세에 따라 학술지나 전자자료의 구입을 결정해야 하는데 부족한 예산 때문에 구입 계획도 못하고 있어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도서관을 위해 지난해 12월 30일 柳武鍾(중문53-59 다이아몬드치재 대표)동문이 발전기금 3억원을 쾌척했다.

아름다운 재단 이사인 柳동문은 현재 캐나다에서 치과재료 관련 사업을 하고 있으며 지난 2000년

해외에서 모은 기부관련 서적을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해 한국 최초의 기부문화 전문 도서관인 ‘류무종기부문화도서관’을 설립한 바 있다.

중앙도서관은 柳동문이 출연한 기금으로 모교 사회복지학과 曹興植(사회사업72-76)교수가 선

정한 61종의 도서를 포함해 인디애나대 기부연구센터의 추천 목록, 아름다운 재단의 보유 리스트 등을 참고해 도서를 구입할 예정이다.

南益鉉발전기금 상임이사는 이번 기부에 관해 “중앙도서관은 모교 재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어 사회에 기여하는 중요도가 높은 기관이지만 단과대나 대학원처럼 동문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형성돼 있지 않아 기부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기부는 도서관에 대한 직접적인 기부라는 점도 의미가 있지만 기부유도를 위한 적절한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기부문화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모교 발전기금 제공〉

“관악을 보고, 듣고, 맛보세요” 문화 향기 가득한 캠퍼스 투어

서울대발전기금은 선후배간 만남을 주선하고 학내 다양한 문화시설 및 전시를 관람하는 캠퍼스 투어를 개최하오니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접수 : (재)서울대발전기금 캠퍼스 투어 담당자
- Tel : 02-871-1222 / Fax : 02-872-4149
- 홈페이지 : <http://www.snu.or.kr> / E-mail : snuff@snu.ac.kr

◆참가비 : 없음. 당일 참가자 전원에게 소정의 기념품 제공

◆모집단위 : 20명 내외
- 단과대·특별과정·학과별 사전 신청에 따라 졸업기수형태로 진행 예정
- 기수 당 20명 내외

◆내 용
- 학내 문화시설 및 전시 관람 및 교내 인사·후배와의 만남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미술관, 박물관, 중앙도서관, 관악수목원)
- 기타 학내 체험 등
(홈커밍데이와 같은 단과대학(원) 및 학과 자체 행사에 편성·활용 가능함)
* 학내 투어 기관은 단과대와 학과의 요청에 따라 맞춤으로 진행합니다.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이사장 李長茂

재학생의 소리



“뽕뽕한 총학생회를 실천하겠습니다”



朴 鎭 赫
(경제05입)
52대 총학생회장

저는 52대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된 朴鎭赫입니다. 저는 86년 서울에서 태어나 한가람고를 졸업해 2005년 모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저는 생활협동조합 학생위원회 활동을 시작으로 학내 공동체에서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학교 안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의제화하는 Think Tank의 필요성을 느껴 학내사안연구포럼, SAF를 조직해 의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지난 51대 총학생회에서 부총학생회장으로 1년간 임해왔습니다. 이번 임기가 마무리되면 그간 다소 소홀했던 학업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속적으로 학업에 매진해 외국에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전공인 경제학을 깊이 공부해 말 그대로 經世濟民하는 것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훌륭하신 선배님들께 감히 어떤 말씀을 드릴지 고민되나 학생회장으로서 글을 쓰게 되는 만큼 52대 총학생회의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 간략히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을 열면서 가장 중점을 두게 될 사업은 ‘새내기새로배움터(새터)’입니다.

새터는 신입생들과 선배들간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2박 3일 정도 교외에서 머물며 공연, 운동회, 레크리에이션 등을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단과대학별로 새터를 가지만 총학생회에서 공동구매 등 새터관련 지원사업을 하게 됩니다.

방학이 끝나고 학기가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학교당국과 협상

해 저희의 공약사안을 이행할 것입니다. 학교와 협상하는 공식채널은 ‘교육환경개선협의회(교개협)’입니다. 학생처장이 주관이 돼 관련담당부서 책임자와 학생대표자들이 논의하는 협의체입니다. 저희는 교개협에서 주요공약이었던 군 복무 중 학점이수제도 및 S/U학점신청제 등을 논의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사업들이 기획 중이며 작년 태안반도에 다녀왔듯이 봉사활동참여에 큰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저는 학생회가 궁극적으로 학생들과 학교공동체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준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생회를 운영하는 것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시국이 어려운 만큼 선배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선배님들께 부끄럽지 않은 총학생회를 만들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코트 릴레이

世宗과 핸드폰

都 泰 佑
(국문89-93)소설가



상제님, 지상을 떠날 무렵인 지금에서야 통신이 터지다니! 아무리 대한민국에 지피에스가 많아 위성통신이 어렵다지만 그동안 답답하고 초조한 마음에 이 핸드폰은 애간장이 다 녹는 줄 알았습니다.

첫 날 아침 여의도 의사당으로 내려보낸 다던 문지기 영감이 전송 각도를 살짝 비껴 잡을 때부터 시련은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출근 시간인데다 A국회의장에 특별경호까지 붙여 길을 비키던 사거리의 차량들이 서로 뒤엉킬 무렵 두루마기 차림의 세종 어르신과 제가 의전차량 앞으로 불쑥 뛰어들었으니깐요.

사이드카에 탔던 경찰들이 막 달려오고 어르신의 먹살과 목덜미, 양팔이 사정없이 꺾어질 때 아, 뭇난 저는 주머니에서 뚱겨져

올해 방청이 허가됐다는군요. 장내에선 “울산 포항 고속도로 예산은 보류하자” “그럼 전주 광양 고속도로도 보류하자” “원안대로 2천억 주세요” “1천5백억 깎고 5백억으로” “그러면 1천억원 감액으로 합시다”며 말이 오가다가 결국 소소위라는 걸 열어 비공개로 심의를 마무리한다나 봐요.

법사위라던가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전단계인 곳에 두루마기 입은 노인이 할곳 보여 혹시나 하고 보았지만 그이는 소수와 의원 대표로 “단상 점거” “물리적 충돌 불사”란 말을 즐겨 쓰더군요. 지상에서의 첫 날 늦도록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다 보니 여기 국회의원들도 잠 잠이 없는지 밤 11시에 다수당만 모여 법안을 통과시키는가 하면, 날밤을 새우고 예산을 표결

있는데, 피의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걸 고지할 때 포박포박 알아듣기 쉽게 하지 말고 웅얼거리며 후루룩 말해 버리라는 거였어요. 어쨌든 진술거부권은 고지한 셈이니깐요.

D검사에게 한 변호사가 찾아와 항의하는 걸 보았는데,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 변호인의 입회를 요구하고, 변호사도 검사에게 참여를 요구했지만 시간을 오래 끈다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를 허가하지 않아서였어요. 그날 밤 D검사는 후배 검사와 앞뒤 가림 없는 세태를 한탄하며 폭탄주를 들이켰지요. 이 근래엔 무국적의 테러용의자가 법관을 만나게 해 달라고 떼를 쓰는 판이라며 혀를 차더군요.

넷째 날 경찰서에선 E형사에게 불려온 전과자가 울부짖는 걸 보았어요. E형사는 정보원을 잘 관리하기로 소문난 사람인데, 요즘 관내에 검거율이 저조하다는 평가가 돌아 전과자에게 절도할 기회를 만들어 주고 현장에서 검거하지는 계획을 세웠대요. 정보원을 시켜 전과자에게 접근한 뒤 절도를 권유하자 재범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며 완강하게 거절했지요. 그렇지만 정보원이 집요하게 유혹하자 전과자는 함께 담을 넘었고, 현금을 들고 나오려는 순간 현행범으로 체포됐지요.

고소감이 안된다며 풀려나는 사람도 보았는데, 건축 현장에서 일하다 중상을 입은

편 명의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고 이전등기까지 마쳐줬습니다. 그런 뒤 퇴원한 남편이 새삼 그 거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부부사이라 해도 등기부에 남편 재산으로 돼 있는데, 인감도장을 들고 나왔다고 해서 부인이 정당하게 팔 권리가 있다고 어떻게 믿느냐는 겁니다.

지상의 마지막 날인 어제는 I구치소에 갇혔죠. 면회실 구석에 놓여 온종일 거기서 오가는 이야기를 듣노라니 이 땅에서의 한살이들이 애달프기도 하고 무섭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둘 있었는데 하나는 사업실패 후 무위도식하며 폭행을 일삼던 남편이 실족해 뇌수술을 받게 되자 아내가 의사에게 퇴원을 강청해 마지못해 퇴원을 허가한 의사들이 살인죄 방조범으로 재판받은 이야기였고, 다른 하나는 사형수의 범죄였습니다. 그이는 어머니와 함께 외딴 암자에서 주지승의 집안일을 도우며 생계를 유지했는데, 거기서 쫓겨난 뒤로 원한을 품고 해병대에 입대했다가 외박을 나오자 늦은 밤 복면을 하고 그 암자를 찾아갔습니다. 주지승을 해치려 했지만 그는 집에 없었고, 식구들만 남아 있었죠. 그를 알아본 큰딸을 절구공이로 머리를 때려 기절시킨 후 석유곤로에서 피운 기름으로 집 돌레를 두른 다음 불을 붙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둘째 딸과 셋째 딸이 문밖으로 나오려 몸부림쳤지만 그는 문을 밖에서 걸어잠근 채 그 앞을 지켜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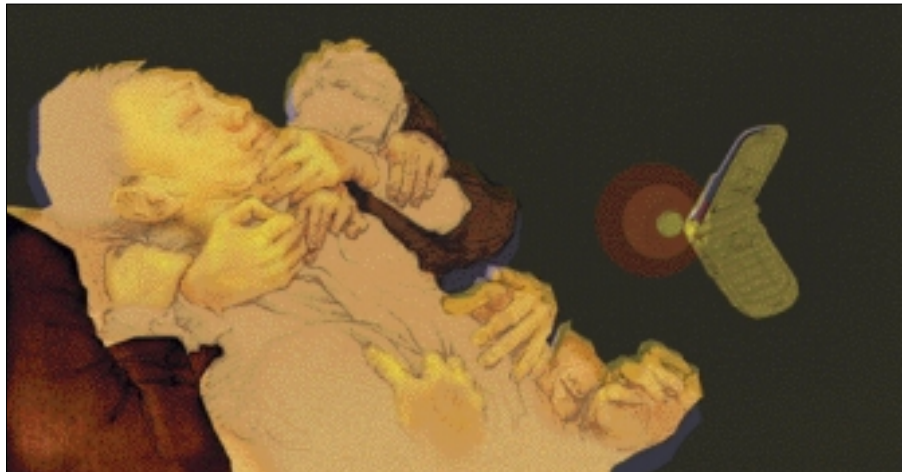
오늘 아침 드디어 돌아갈 시간이 다 되도록 저는 세종 어르신을 만나지 못했는데, 조금 전 헌법재판소 안으로 들어가는 남루한 사람이 어르신으로 보여 저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두루마기는 아무렇게나 구겨져 있고, 머리카락은 군데군데 제비집을 지었으며, 신발 또한 폐품수집통에서 막 건져낸 것 같은 운동화였습니다.

대기실에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세종 어르신이 틀림없다고 확실하게 봤습니다. 두루마기를 걸친 사람이 국회의장의 차를 막아서서 테러용의자로 국정원의 수사를 받았다고 했죠. 변호사와의 접견을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고, 법관 대면을 청구해도 거부됐을 뿐더러, 대한민국 국적은 물론 어떠한 외국 국적도 없는 무국적자로 본국 송환마저 할 수 없는 이런 사람에게도 법적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법조계의 논란이 됐다고 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이례적으로 무국적자의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이 신속하게 받아들여져 이뤄진 것으로, 무국적자에게도 법관 대면권이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 판결이 기대된다더군요.

떠도는 얘기를 다 들었을 무렵 재판정 저편에서 세종 어르신이 흐뭇한 얼굴로 걸어 나오시더군요.

“아직은 희망이 있어. 저 법관이 이걸 건네더라고.” 그 분은 제게 쪽지를 내밀었죠. 〈우대언 鄭淵이 계하기를 “이제 어떤 사람이 御駕 앞에 뛰어 들어온 자가 있사오니, 율에 의하여 絞罪에 처함이 마땅하옵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매우 옳지 않다. 만일 그런 법률이 있는 줄을 알고도 감히 뛰어들었다면 율이 응당 이와 같으려니와, 무지한 사람이 어리둥절해 갈 바를 모르고 뛰어든 자를 역시 이런 율로 죄를 준다면 어찌 옳겠느냐, 다시 율문을 참고해 아뢰라” 하다.〉— 세종실록 11년(1429년 3월 26일)

“
요즘엔 절망을 호소하는
백성들이 날로 많아져
조선에서 법치의 기초를 놓은
세종 어르신이 직접 사정을
살피러 오신 거라지요?
”



일러스트레이션 金多海(서양화02-07) 동문

나와 바닥을 부딪고 까무러치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려보니 글썽 제 혼자 중앙 분리대의 풀밭에 팽개쳐져 있지 뭇니까.

허둥지둥 어르신의 모습을 찾아보았지만 어떤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죠. 그러다 제 좁은 소견으로 생각한 게 있었습니다. 세종 어르신이 제 몸의 기억장치를 이용해 이곳의 소리와 모습들을 담아가려 했으니, 저 혼자라도 부지런을 떨어보자. ‘분별력은 그리 기대할 수 없지만, 7일간의 일정에 따라 국회로부터 구청과 세무서, 검찰청, 경찰서, 법원, 법무법인, 구치소와 헌법재판소를 옮겨 다닐 수야 있지 않느냐, 그러다 그분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런데 상제님, 이번 시찰 중점이 法이라 하셨죠? 저는 익숙한 게 잘 듣는 법, 잘 보는 법, 수다 떠는 법 같은 것이어서, 탄핵, 수도이전, 종부세 같은 말이 법하고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늘에서 듣자니 그 사건들마다 법이 문제가 돼 소란스러움이 자못 심할뿐더러, 특히 요즘엔 절망을 호소하는 백성들이 날로 많아져 조선에서 법치의 기초를 놓은 세종 어르신이 직접 사정을 살피러 오신 거라지요?

법을 만든다는 국회에 와 보니 제일 시끄러운 곳은 계수조정소위원회란 곳이었어요. 듣자니 십 몇 년간 방청허가 신청이 거부되다가

처리하기도 해, 꿈인지 생사인지 뒤송송한 하루였습니다.

둘째 날은 입력된 대로 B구청과 C세무서를 찾아가 보았어요. 초대형 청사를 짓고 뇌물 수수로 구속돼버린 전임 구청장을 이은 B구청장은 청사 내에 매점 영업을 허가해 내주고도 시설 사용허가 신청에는 무응답으로 일관했지요. 견디다 못한 매점 주인이 소송을 통해 무응답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내자 기껏 응답을 해준다는 것이 허가를 거부한다였어요. 화가 난 매점 주인이 다시 소송으로 거부를 철회하라며 다투고 법원이 주인의 말을 들어줄 듯 하자 B구청장은 거부 이유를 처음과 달리 그럴듯한 것으로 바뀌버렸지요. 민원인 숫자가 늘어나 새로운 대기실이 필요해졌다고 말입니다.

C세무서에서는 이런 얘길 들었죠. 어떤 사람이 현금과 주식을 섞어 출신 대학에 2백10억을 기부했는데, 일 년이 지난 뒤 세무서에서 1백40억을 증여세로 내라 했대더군요. 이유인즉 주식 기부가 세금을 면하려면 100%이어야 하고, 학교에서 회사를 경영하기 어렵다며 10%라도 남겨 놓으면 기부액의 6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법규에 적혀 있다는 겁니다.

셋째 날의 방문처는 검찰청이었죠. D검사가 후배 검사에게 요령을 일러주는 걸 보

근로자가 F설비업주를 고소한 거였죠. 이 사람은 근로자가 평소 지지대가 허술하다고 말했는데도 보수를 미뤘았어요. 마침내 지지대가 무너져 근로자가 중상을 입자, 새로운 설비업체를 세워 이전 업체의 사업을 모두 물려받게 한 뒤, 예전 업체는 부도로 처리해 버렸죠.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받으려 해도 받을 데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다섯째 날 법원을 가 보니 G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피해자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법원이 촉탁한 신체감정 결과는 노동능력이 일생 동안 40% 상실됐다는 것이었는데, G판사는 5년간 20% 노동능력이 상실됐다고 판단했죠. 자유심증주의라나요? 변호사가 자의적인 판단이지 않냐고 따지자, “그럼 감정인한테 가서 재판을 받지 그러냐”고 되받더군요.

여섯째 날 H법무법인에 가니 온갖 법률 사건이 백화점의 물품처럼 들어차 있어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전 그 중 간단해 보이는 사건 하나만을 간신히 이해할 수 있었는데, 이때쯤엔 저도 에너지가 떨어져 초저속 모드로만 활동을 이어나갔죠. 기억에 남은 사연은 어느 부부와 제3자간의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입원하자 부인은 병원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남편의 인감도장을 이용해 남편의 승낙 없이 남

동 정

수 상

▲沈相權(종교58-62 한국전문심리치료원장)=최근미국목회심리치료협회(AAPC)가 수여하는 최우수 공로상 수상.

▲許鎮奎(금속공학59-63 일진그룹 회장·분회 부회장)=지난 12월 22일 국내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금탑 산업훈장 수훈.

▲林東源(철학59-61 前통일부장관)=지난 12월 17일 경향신문사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공동 제정한 제6회 민족화해상(개

인부문) 수상.
▲吳允德(행정61-65 법무법인 송백 변호사)=지난 11월 27일 법조협회가 수여하는 제7회 법조봉사대상 수상.

▲金夏爽(화학63-67 모교 대학원장)=지난 12월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제57회 서울시 문화상(자연과학분야) 수상.

▲朴聖炫(화학공학64-68 모교 통계학과 교수)=지난 12월 9일 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 제57회 서울시 문화상(인문과학분야) 수상.

▲鄭光和(물리66-70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지난 12월 8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제8회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진흥부문) 수상.

▲金鍾勳(건축69-73 한미파슨스 대표)=지난 12월 10일 (사)한국언론인연합회가 수여하는 제8회 자랑스런 한국인대상(건설발전부문) 수상.

▲金敏基(회화69-78 극단 학전 대표)=지난 12월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제57회 서울시 문화상(연극분야) 수상.

▲姜惠誠(전문79-83 부산대 교수)=지난 12월 8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제8회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이학부문) 수상.

▲河貞淑(화학80-84 고려대 교수)=지난 12월 8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제8회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공학부문) 수상.

▲鄭肯植(공법81-86 모교 법학부 교수)=지난 12월 19일 모교 관악캠퍼스 법과대학에서 열린 제1회 영산 법사학 학술상 시상식에서 우수학술상 수상.

▲林慶園(기악81-85 성신여대 교수·첼리스트)=지난 12월 5일 한국예술평론가 협의회가 수여하는 제28회 '올해의 최우수 예술가'상(음악부문) 수상.

▲李康國(ACAD 63기 E-유로 대표)=지난 12월 2일 제45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무역진흥을 통해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 수상.

▲姜普英(HPM 1기 안동병원 이사장·HPM동창회장)=최근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학원

에서 제1회 KAIST 경영자대상 수상.

▲金 勇(HPM 2기 김용한의원장)=지난 12월 16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에서 평화통일 여론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 수상.

인 사

▲鄭秉起(농경제52-57 前세계은행 농업전문컨설턴트·한림저널사 대표)=지난 12월 16일 경기도 용인시 노인복지관 탁구사랑동우회 회장에 선출.

▲金庸來(행정53-57 前서울특별시 시장·덕성여대 교수)=지난 12월 22일 재단법인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에 취임.

▲朴相大(동물학56-60 모교 생명과학부 명예교수·대한민국학술원 회원)=최근 사단법인 국제백신연구소(IVI) 한국후원회 정기총회에서 제3대 회장 겸 이사장에 선임.

▲崔圭徹(행정62-66 前동아일보 논설주간)=지난 12월 9일 연합뉴스 대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에 선출.

▲李院濟(임학64-69 인도네시아 코린도그룹 전무)=최근 인도네시아의 합관·신문용지 생산 및 컨테이너 제조업체인 코린도 그룹 부회장에 취임.

▲崔棟圭(농학66-70 前강원도 정무부지사·前중소기업장장)=지난 12월 17일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에 선임.

▲表鶴吉(무역66-70 모교 경제학부 교수)=지난 12월 12일 한국국제경제학회 총회에서 임기 1년의 회장에 취임.

▲李佑喆(법학67-71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지난 12월 9일 임기 3년의 제31대 생명보험협회장에 취임.

▲姜淳範(의학67-73 모교 산부인과학교실 교수)=최근 아시아 부인종양학 전문의 모임인 '아시아 부인종양학회' 초대 회장에 선임.

▲朴杉沃(지리68-72 모교 지리학과 교수·평의회 의장)=지난 12월 4일 임기 3년의 세계지리학회 상임이사에 선출.

▲文昌克(정치68-72 중앙일보 부발행인 겸 주필·본보 논설위원)=지난 12월 1일 중앙일보 대기자(부사장대우)에 선임.

▲黃健豪(경영70-74 한국증권업협회장)=지난 12월 19일 증권업협회·자산운용협회·선물협회가 통합된 한국금융투자협회 초대 회장에 선출.

▲李政愼(의학70-76 서울아산병원 진료부원장)=최근 서울아산병원

한국미협 '미술인의 날' 행사

趙守鎬동문 등 미술인상 수상

지난 12월 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한국미술협회가 주최한 '미술인의 날' 행사가 열렸다.

이날 제2회 올해의 미술인상 본상 수상자로 權寧禹(회화46-51)동문(한국화부문)이 선정됐다.

또 명예공로상은 趙守鎬(회화47입 한국국제서법연맹 회장)동문(사진), 특별상은 田礪鎭(응용미술49입 홍익대 명예교수)동문, 해외작가상은 方惠子(회화56-61 재불 서양화가)동



문에게 돌아갔다.

이 상과는 별도로 金興洙화백이 한국적인 그림을 그리는 작가를 대상으로 제정한 '김흥수 우리미술상' 시상식도 함께 열리는데 한국적인 추상화를 그리는 張成筍(회화48입)동문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원 제12대 병원장에 임명.

▲李柱鎭(공업교육71-75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정보연구소장)=지난 12월 3일 임기 3년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에 임명.

▲金明壽(화학공학73-77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표준보급부장)=지난 12월 9일 임기 3년의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에 취임.

▲朴慶姬(식품영양73-77 KBS 아나운서)=지난 1월 1일 여성으로 국내 방송사 최초로 국장급인 KBS 아나운서실장에 선임.

▲曹敬穆(금속공학74-79 前부산대 교수)=지난 11월 26일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제2대 소장에 취임.

▲許大錫(의학74-80 모교 내과학교실 교수·모교 병원 암센터장)=지난 12월 21일 한국보건 의료연구원 초대 원장에 임명.

▲廉明培(경제75-79 충남대 교수·국제교류원장)=지난 11월 28일 사단법인 정보통신정책학회 제11대 회장에 선출.

▲崔英勳(법학78-83 동아일보 사회부장·본보 논설위원)=지난 12월 27일 동아일보 편집국 부국장에 선임.

▲張明宇(치의학83-89 미국 하버드대 치대 교수)=지난 1월 1일 미국 하버드대 치과대학 보철과장에 임명.

▲許文明(가정관리86-90 동아일보 논설위원·본보 논설위원)=지난 12월 27일 동아일보 국제부 차장에 선임.

▲朴昞謹(대학원92-94 마산대 국제소물리에학과장)=최근 서원대(옛 청주사범대학) 식품과학부 차(茶)학과장에 선임.

▲金基星(ACAD 52기 서울시특별시의회 의원)=지난 11월 25일 제7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 선출.

▲金熙坤(ACAD 55기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 상봉지점장)=최근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정운영단장에 취임.

▶ **행 사**

▲丘仁煥(국어교육50-54 모교 국어교육과 명예교수·문학과문학교육연구소장·계간 문예마을 회장)=최근 대전 삼성뮤직클럽에서 계간 문예마을 제1회 문학

상 시상식 개최.

▲李吉女(의학51-57 경원대 총장·가천길재단 회장·본회 부회장)=지난 12월 5일 가천의대 길병원 가천홀에서 제10회 심정

효행상 시상식 개최.
▲李啓謐(철학56-61 前교통부장관·한국문화세계화연합 상임의장)=지난 12월 17~23일 서울 경운동 SK허브아트센터 갤러리서울에서 누드크로키전 개최.

▲朴燦久(국어교육56-60 한국중등교장 평생동지회장)=지난 11월 3~4일 서울시 학생교육원 대성리교육원에서 제9회 전국

연수회 개최.
▲李炯均(정치59-64 한국방송인클럽 회장·경향신문 사우회장·본보 논설위원)=지난 12월 15일 한국언론재단 내셔널프레스

클럽에서 사우회 송년의 밤 행사 개최.

▲申秀貞(기악59-63 피아니스트)=지난 11월 30일(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 12월 20일(백조의 노래), 12월 30일(겨울

나그네) 서울 서초동 모차르트홀에서 슈베르트 연가곡 연주회 개최.

▲權武一(철학64-68 前국제조명사장)=최근 계간 문예지 '문학과 의식'(2008년 가을호)에 단편소설 '해피의 고백'을 발표

함으로써 소설가로 데뷔.

▲李光澤(행정68-75 국민대 교수·한국사회법학회 회장)=지난 12월 13일 국민대에서 '근골격계 질환과 업무상재해'를 주제로 동계 학술대회 개최.

▲崔鍾燦(무역68-72 강원도민회장)=오는 1월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강원도민회 정기총회 및 신년인사회 개최.

▲金仁圭(정치69-73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회장·본보 논설위원)=지난 12월 17일 국립암센터 초청으로 '한국언론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명사특강.

▲朴南姬(회화70-74 경북대 교수)=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15일까지 대구시 동산동 갤러리 아

테나-파리에서 작품전 개최.

▲李泰桓(외교73-77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세계지역학회 회장)=지난 2007년 출간한 '중국의 국내정치와 대외정책'(한울아카데미)이 대한민국학술원 2008년 우수학술도서로 선정.

▲白鍾燮(사회교육77-81 대전대 교수)=재학시절 시위전력으로 행정고시 24회, 25회 3차 면접 불합격처분이 위법행위·인권침해

이므로 지난 12월 4일 진실화해위원회가 정부에 명예회복 권고결정.

▲李恩淑(회화81-85 화가)=지난 12월 1~31일 서울 상암동 DMC 문화콘텐츠센터 전시관에서 '도시인'을 주제로 개관기념 초대 개인전 개최.

I 명복을 빕니다 I

▲魏祥奎(조선항공44-50 모교 명예교수)=지난 12월 10일 별세.
▲朴泰植(농대 전문부44-47 모교 명예교수)=지난 12월 6일 별세.
▲蘇尙永(정치45-48 前요르단 대사)=지난 12월 13일 별세.
▲鄭鍾瑞(상대 전문부46-49 前대우절강 대표)=지난 12월 4일 별세.
▲車柱環(중문48-52 모교 중문학과 명예교수)=지난 12월 2일 별세.
▲李秉鎬(국어교육49-53 前방송통신대 학장)=지난 12월 8일 별세.
▲姜信雄(교육학55-59 홍익대 명예교수)=지난 12월 22일 별세.
▲洪亨學(경제58-62 선진유통 대표)=지난 12월 5일 별세.
▲申東植(법학60-64 前외환카드 부사장)=지난 12월 21일 별세.

'동정'난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매달 24일 이전에 보내주시면 다음달 동창회보에 게재됩니다.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서울대 연구공원 219호
- e메일 : snua@paran.com 또는 snua1969@empal.com
- 전화 : 02)886-2219
- 팩스 : 02)886-2218

신 간

대한민국 이제

다시 시작이다

— 鄭淳英 지음



성신여고 교사를 역임한 鄭淳英(사회 교육 56-60) 동문의 에세이집.

이 책에는 뼈아픈 과거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다 같이 잘 살기 위한 저자의 제안이 실려 있다.

鄭동문은 한국의 과거를 기피하는 것은 한국의 미래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고 주장한다.

잘 산다는 것의 공통점은 생계의 안정, 인격의 존중, 높은 국가의 명예라며 훌륭한 국가에서는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에세이판·값 9,000원〉

헛소리

— 鄭尙祚 지음



경 제 기획원 총무과장, 농림부 감사담당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한협 사무국장, 한전KPS 감사

등을 지낸 深泉 鄭尙祚(행정 57-62 서울경제포럼 상임고문) 동문의 칼럼집.

이 책은 鄭동문이 공무원 생활을 할 때부터 여러 언론매체에 기고한 글을 모아 정리했다.

총 6부로 나뉘 ‘장관님 댁에 갑니다’, ‘도산공원’, ‘생명의 은인’, ‘법과 기적’, ‘정도가 왕도다’ 등을 주제로 50여 편의 수필을 담았다. 마지막 6부는 1990년 월간 중앙의 논픽션 우수작에 당선된 ‘헛소리’와 鄭동문을 소개하는 지인들의 글로 구성됐다. 〈문학시티판·값 15,000원〉

서양문명의 정체성

— 林熙完 지음



건국대 사학과 林熙完(사 학 59-65) 명예교수가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서양문명의 발전과 정에서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면서 영향을 주었는지를 추적한 역

사서술,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은 제1, 2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겪은 서양의 지성인들이 그들의 역사를 반추하는 과정에서 찾아낸 서양문명의 정체성이다.

林동문은 이 책에서 그리스·로마적 전통, 그리고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에 관한 역사적 사건들을 객관적으로 다뤘다. 〈그리심판·값 20,000원〉

건국 60년

한국의 역사학과 역사의식

— 朴錫興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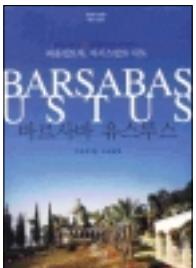
경 향 신문 학술문화부장, 문화일보 편집국장대우 등을 지낸 朴錫興(불문 63-67 건양대 겸임교수) 동문이 33년간 학술기자로 취재했던 한국역사학 발자취와 식민사관과 자학사관 극복 논의를 정리한 책.

1969년 문리대 부설 동아문화연구소가 기획한 ‘한국학 입문서’의 국사학 분야를 검증한 김철준 교수는 45년 이후 출간된 진단학회 한국사 6권, 이병도 한국사대관, 이인영 국사요론, 이기백 한국사신문, 한우근 한국사통론 등의 한국사 개설서의 공통적 결함이 일제식민지사관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책은 김철준 교수의 폭탄 선언으로 본격화된 식민사관 논쟁을 비롯해 광개토왕비 변조, 친북 자학사관, 교과서 왜곡, 사육신, 신식민사관 논쟁 등 역사학 논쟁사와 전국역사학대회 쟁점 등을 항목 연대기별로 분석했다. 〈한국학술정보판·값 28,000원〉

바르사바 유스투스

— 具昌輝 지음



부 광 약 품 중앙연구소 具昌輝(약학 64-68) 부사장이 바르사바 유스투스(Barsabas Ustus)에 대

해 이집트, 요르단, 예루살렘 등에 전해오는 이야기와 마크의 복음서에 쓰여져 있는 내용을 각색해 소설화한 책.

바르사바 유스투스는 예수 십자가 이후 열두 제자가 모여 수제자인 베드로 사도가 자결한 가롯 유대의 후임자를 뽑을 당시, 맛디아와 함께 복수로 추천된 사람이다. 맛디아가 추첨을 통해 최종 선택됐지만 유스투스는 사전에 이를 사양했다고 한다. 그 후 사도행전에 여러 번 그 이름이 기록됐으며 유스투스는 사도의 수준에 있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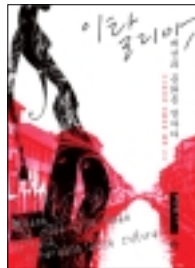
사람이고 예수의 복음에 믿음이 깊었던 성도로 전해온다.

이 책은 복음전도자이면서도 어시스턴트 사도인 바르사바 유스투스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설명한다. 〈풍경판·값 28,000원〉

이탈리아,

패션과 문화를 말하다

— 정인희 지음



금 오 공 대 신소재시스템 공학부 정인희(의류학 86-90) 교수가 2006년 8월부터 2007년 8월까지 1년

간 밀라노에 체류하는 동안 ‘이탈리아 속’으로 들어가 그곳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체험한 ‘이탈리아의 영혼’을 담은 책이다.

여름, 가을, 겨울, 봄, 다시 여름에 이르는 52주 동안 보고 듣고 느끼고 찾고 생각하고 분석한 이탈리아의 모든 것이 글과 더불어 사진으로 표현돼 있다. 〈푸른솔판·값 15,000원〉

공 연



김수연 첼로독주회

— 1월 29일 예술의 전당

첼리스트 김수연(기악 94-98) 동문(사진)이 1월 29일 오후 8시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독주회를 연다.

부천시향 객원 부수석인 김동문은 이날 베토벤, 힌데미트, 라흐마니노프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공연문의: 예인예술기획 586-0945〉



임명진 클라리넷독주회

— 2월 3일 예술의 전당

클라리네스트 임명진(기악 93-97) 동문(사진)이 2월 3일 오후 8시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독주회를 갖는다.

성남시향 수석인 임동문은 이날 슈만, 데니소프, 호로비츠, 레거, 바시 등의 작품을 연주한다. 〈공연문의: 예인예술기획 586-0945〉

장학빌딩 건립기금 모금 운동은 계속됩니다

《백돌 한 장이라도 ...》

계좌번호 : 국민은행 827-01-0248-017 / 신한은행 343-05-019330 / 농협 069-01-272391 [예금주 : (재) 관악회]

목표액 : 300억원

- ◆50억원
- △임광수(기계공학48-52)
- ◆15억원
- △신명규(생물교육48-54)
- ◆10억원
- △강신호(의학46-52)
- △곽영필(토목공학56-60)
- △구평희(정치학47-51)
- △김상하(정치학45-49)
- △김은중(경제학59-63)
- △김정식(통신공학48-56)
- △김종섭(사회사업66-70)
- △김형주(토목공학46-50)
- △박호전(경영학62-66)
- 김영희(작곡62-66)
- △신창재(의학72-78)
- △오동영(조선항공54입)
- 김찬숙(치의학56-60)
- △윤세영(행정학56-61)
- △이준용(경제학56-60)
- △정재영(상학61-66)
- △정팔도(AIP 1기)
- 이지행
- △홍성대(수학57-63)
- ◆5억원
- △김주진(법학54입)
- ◆3억원
- △김병순(AMP 4기)
- 이지호(의학77-83)
- △이길여(의학51-57)
- △정석규(화학공학48-52)
- △조기호(화학교육54-58)
- 이영자(생물교육56-60)
- ◆2억원
- △남정현(건축학57-61)
- △이종기(경영학69-73)
- △장학순(토목공학46-50)
- △조필제(조선항공46-50)
- ◆1억5천만원
- △故김도창(법학43-47)
- 목춘5부자
- ◆1억2천만원
- △엄병윤(외교학60-64)
- ◆1억1천만원
- △성백전(토목공학52-56)
- 김안순(화학공학54-58)
- △수학과동창회
- ◆1억30만원
- △박성훈(기계공학58-63)
- ◆1억원
- △강순걸(법학54-58)
- △곽동현(법학61-65)
- △김두희(물리학52입)
- △김문현(상학58-64)
- △故김영경(기계공52-56)
- △김정철(건축학52-56)
- 김정식(건축학54-58)
- △김창식(전기공학53-57)
- △나공목(상학56-61)
- △남상용(건축학52-57)

- △노인환(경제학54-58)
- 故한평화(가정교육60졸)
- △류중희(기계공학53-57)
- △명태현(기계공학46-50)
- △박실상(AIC 9기)
- △박희백(의학51-57)
- △서정화(법학51-55)
- △故손치무(대학원70졸)
- △안성철(행정학58-63)
- 손운숙
- △故양은숙(간호학51-54)
- △故오응현(섬유공67-71)
- 추경옥
- △오홍조(치의학56-61)
- △우인성(기계공학58-62)
- △유상부(토목공학60-64)
- △이금기(약학55-59)
- △이상범(법학53-57)
- △이수범(행정학56-60)
- △이예식(약학46-49)
- △이정상(상학59-65)

- △마국철(공업교육68-72)
- △박명운(보대원74-76)
- △박주탁(무역학69-74)
- △손일근(법학51-64)
- △안 훈(수의학53-57)
- △오인석(행정학58-62)
- △유중해(법학50-54)
- △이도경(농학56-63)
- 이찬진(기계공학84-89)
- △이순석(약학61-65)
- △이승준(섬유공학56-60)
- 이청원(자원공학67졸)
- △이운주(의학81-87)
- 오지은(인류학83-87)
- △이원규(농생물학58-63)
- △이재원(상학55-59)
- △이종대(천문기상학69졸)
- △이형도(화학공학61-67)
- 박호순(영어교육66-70)
- △정대영(경제학51-55)
- △정재봉(사회사업60-64)

- △최정길(금속공학52-56)
- ◆1천5백만원
- △김철순(조경학76-83)
- △치불희
- ◆1천2백만원
- △강응선(치의학78-84)
- △심영보(의학55-61)
- △안동일(법학59-63)
- △오상호(전기공학48-55)
- △이내원(화학교육58-62)
- △이재철(법학70-77)
- △한규택(원자핵공73-77)
- ◆1천1백50만원
- △천남중(광산학65-69)
- ◆1천1백30만원
- △신면우(의학50졸)
- ◆1천1백10만원
- △이흥중(역사교육54-58)
- ◆1천1백만원
- △김상수(자원공학73-77)
- 김태훈(건축학02-07)

- △김원배(동물학55-60)
- △김윤중(약학64-71)
- △김은식(국사학73-80)
- 윤영옥(생물교육72-76)
- △김일섭(경영학64-69)
- △김재범(산업공학74-78)
- △김재호(생물교육53-57)
- △김주환(토목공학57-61)
- △김진규(기계공학61-66)
- △김찬옥(기계공학55-59)
- △김철수(법학52-56)
- △류태환(상학48-54)
- △문규철(응용화학69-73)
- △문대원(경영학71-75)
- △문명국(기계공학73-75)
- △문성훈(식품공학86-92)
- △박덕철(기계공학57-61)
- △박명학(영어교육61-65)
- △박종국(농화학57-63)
- △박준우(의학75-81)
- △박진희(무역학76-80)
- △박창우(경제학80-84)
- △백사익(채광학40-42)
- △변상현(의학51-57)
- △서계숙(기악56-60)
- △석학진(상학58-64)
- △설동섭(축산학53-57)
- △신방호(경제학67-71)
- △신윤식(사학55-59)
- △안경상(행정학57졸)
- 김정애(가정교육54-58)
- △양배덕(전기공학57-61)

△추재옥(의학63졸)
△표상기(원자력공61-65)
△하영기(정치학44-48)
△한창섭(정치학57-62)
△故함인영(기계공학48졸)
△함정호(행정학53-57)
△허 선(정치학64-68)
△홍순자(독어교육61-65)
△황경로(AMP 11기)
△전북지부동창회
△간호대학동창회
〈이상 2005년 10월 1일부터 2008년 12월 17일까지 출연해 주신 분〉

- ◆5백만원
- △AMPFRI동창회
- ◆3백30만원
- △이종복(응용미술62-66)
- ◆3백만원
- △박금식(화학54-58)
- ◆2백30만원
- △강충원(전기공학59-65)
- ◆2백만원
- △윤정일(교육학62-66)
- ◆1백50만원
- △곽 승(화학공학59-63)
- ◆1백30만원
- △김영균(법학57-59)
- ◆1백만원
- △고의식(수의학56-60)
- △고재선(섬유공학52졸)
- △윤정철(의학59-65)
- △이기춘(가정교육61-65)
- △이병주(의학61-67)
- △이우진(농화학64-68)
- △조규광(정치학48졸)
- △조대연(법학69-73)
- ◆60만원
- △김승환(상학67-71)
- ◆50만원
- △황정자(가정교육63-67)
- ◆30만원
- △김장연(공업화학76-80)
- △오병남(미학59-63)
- △이 인(식품동물01-08)
- △정기인(영어영문60-64)
- △조상순(재료공학72-76)
- ◆20만원
- △박원규(농공학60-64)
- △손명희(농기정학71-75)
- △조성준(법학98-04)
- ◆16만원
- △심상권(종교학58-62)
- ◆12만3천원
- △우기원(잠사학55-60)
- ◆11만원
- △현익환(전기공학82-86)
- ◆10만원
- △강명자(가정교육61-65)
- △박주은(법학47졸)
- △심상운(GLP 14기)
- △양우현(해양학87-91)
- △이춘식(행정학52-56)
- △정덕진(AFB 7기)
- △정진대(지리교육71-76)
- △조동길(대학원85-87)
- △최광열(물리교육73-80)
- 〈이상 2008년 11월 22일부터 12월 17일까지 출연해 주신 분〉

〈지면관계로 회비 납부자 명단은 다음 호에 게재합니다〉

명예의 전당에 내 이름을!!

일반회원 10만원 · 이사 30만원 이상

- △이준행(섬유공학48-54)
- △이지호(의학77-83)
- △이해원(행정학51-55)
- △장세일(전기공학59-63)
- △장중환(의학69-76)
- △전동용(수의학52-56)
- △정운환(임학56-62)
- △정충시(화학공학72-76)
- △조병우(섬유공학59-64)
- △지원철(축산학73-77)
- △최두형(행정학51-55)
- △최상홍(기계공학54-58)
- △최희장(섬유공학58-64)
- △홍상옥(원예학83-87)
- △보건대학원동창회
- ◆8천만원
- △미술대학동창회
- ◆6천만원
- △김윤택(경대원68-70)
- △화학과동창회
- ◆5천30만원
- △이종현(경제학59-65)
- 신갑순
- ◆5천10만원
- △박남식(SGS 2기)
- ◆5천만원
- △강인구(수의학59-64)
- △공대식(기계공학56-60)
- △김정희(약학57-61)
- △김종기(생물교육51-55)
- △김중서(경제학58-63)
- △김중현(경제학55-59)
- △류제명(AMP 34기)

- △지창수(상학55-59)
- △하권익(의학57-63)
- △하상완(치의학64-70)
- △허병하(상학58-62)
- △홍예표(치의학65-71)
- △황해근(토목공학54-60)
- 故이금옥
- △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
- △농대그린장학회
- △농대일산회
- △한우리SJM
- ◆3천60만원
- △원정수(건축학53-57)
- 지 순(건축학54-58)
- ◆3천만원
- △고원호(기계공학48졸)
- △박홍일(영어교육60-64)
- △심형윤(토목공학52-56)
- △유석홍(무역학61-65)
- 박영희(기악70졸)
- △이경택(섬유공학57-61)
- △이광식(약학66-70)
- ◆2천만원
- △강신혁(문리66-73)
- △강학순(기계공학64-69)
- △김원일(건축학61-65)
- 최미혜(성악66-70)
- △김재백(약학52-56)
- △서병륜(농공학69-73)
- △송명호(자원공학59-65)
- △윤세극(경제학45-51)
- △조갑주(경제학58-63)
- 정정영(불어불문62-66)

- △정해남(법학72-76)
- ◆1천80만원
- △서병태(의학54-60)
- △조내규(약학58-62)
- ◆1천70만원
- △김정범(치의학60-66)
- ◆1천60만원
- △박준옥(약학55-59)
- ◆1천30만원
- △심이택(화학공학57-63)
- △이영필(항공공학66-71)
- △이형하(법학74-78)
- △지현택(치의학43-47)
- △허성길(경제학60-64)
- ◆1천만원
- △강신주(사회교육51-55)
- △강용현(법학71-78)
- △강행언(토목공학61-65)
- △권동은(FIP 4기)
- △권혁웅(불어불문59-63)
- △금진호(법학50-58)
- △김 철(기계공학64-68)
- △김기춘(법학58-62)
- △김두만(상학59-63)
- △김미령(약학74졸)
- △김백준(수학62-66)
- △김병린(토목공학55-59)
- △김상호(법학72-76)
- △김선양(중어중문84-88)
- △김연호(화학공학71-75)
- △김영갑(법학74-78)
- △김영석(경제학60-66)
- △김영재(공업화학77-81)

- △양성철(정치학58-64)
- △엄기영(사회학70-74)
- △오병제(AMP 21기)
- △오용섭(임학60-66)
- △유희준(상학49-55)
- △윤영석(경제학58-64)
- △윤희진(축산학63-67)
- △이강수(상학51-55)
- △이경호(행정학61-65)
- △이계우(행정학58-63)
- △이동철(토목공학78-82)
- △이병재(경대원69졸)
- △이병형(화학67-71)
- △이상현(정치학64-68)
- △이석운(영어영문50졸)
- △이인기(지질과학62-66)
- △이재후(법학58-62)
- △이전구(임학60-64)
- △이종용(기계공학65-69)
- △이진규(치의학78-84)
- △이창기(약학55-59)
- △이창원(법학55-60)
- △장무환(경제학45-51)
- △장세권(농공학70-76)
- △장익용(기계공학54-58)
- △장지준(의학70-77)
- △장휴동(농경제학59-63)
- △조길웅(HPM 14기)
- △조정훈(자원공학75-81)
- △최남해(상학52-56)
- △최선집(사회교육75-79)
- △최승철(기계공학66-70)
- △최준기(조선항공57-61)